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 敘事 巫歌에 나타난 語彙 形成 研究

指導教授 崔 圭 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夫 喜 淑

1998年 2月

濟州 敘事 巫歌에 나타난 語彙 形成 研究

指導教授 崔 圭 一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12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夫 喜 淑



夫喜淑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8年 1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濟州 敍事 巫歌에 나타난 語彙 形成 研究

夫 喜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崔 圭 一

이 논문은 제주 서사 무가 속의 어휘를 중심으로 제주 방언에서 서사 무가에 나타난 어휘 형성 원리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1. 서사 무가 어휘를 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 무가는 입말 [口語] 특성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제주 방언의 생동감 있는 말의 현장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제주인의 '의식주'는 물론 문화 전반의 다양한 어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휘 자료가 매우 풍부하여 어휘 자료 확보에 용이하다.

셋째, 무당의 입으로 구송되기 때문에 단어나 구(句) 형성의 규칙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규칙성 서술에 용이하다.

어휘 추출 자료로는 「濟州島巫俗資料事典」, 「韓國의 民間信仰」, 「朝鮮巫俗의 研究 上」, 「南國의 巫歌」를 이용하였다.

2. 합성어 형성에는 일정한 결합 원리가 있음을 밝히고, 합성어 형성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명사의 경우는 모두 세 가지 규칙으로 ① $[X]_N, [Y]_N \rightarrow [[X]_N [Y]_N]_N$ '이새끼' ② $[X]_N, [Y]_N \rightarrow [[X]_{N/R} \wedge / \emptyset / \emptyset]_{DET} [Y]_N$ '웃지방, 질칸나이, 예시잡' ③ $[X]_{Adv}, [Y]_N \rightarrow [[X]_{Adv} \vee \neg / \emptyset]_{DET} [Y]_N$ '든대, 디딜팡, 족수까락'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2) 동사의 경우도 세 가지 규칙으로 ① $[X]_V, [Y]_V \rightarrow [[X]_V \text{-어/-고-}]_{Adv} [Y]_V$ '나고가다, 모다들다', ② $[X]_N, [Y]_V \rightarrow [[X]_N [Y]_V]_V$ '거넘하다, 그릇내다', ③ $[X]_{Adv}, [Y]_V \rightarrow [[X]_{Adv} [Y]_V]_V$ '허우뜰다'를 예로 제시하였다.

(3) 부사의 경우는 모두 다섯 가지 규칙으로 ① $[X]_N, [Y]_N \rightarrow [[X]_N [Y]_N]_{Adv}$ '방울방울, 궁기궁기' ② $[X]_{Adv}, [Y]_{Adv} \rightarrow [[X]_{Adv} [Y]_{Adv}]_{Adv}$ '이레저레' ③ $[X]_{Adv}, [Y]_{Adv} \rightarrow [[X]_{Adv} [Y]_{Adv}]_{Adv}$ '어둑어둑' ④ $[X]_V, [Y]_N \rightarrow [[X]_V [Y]_N]_{Adv}$ '홍글홍글' ⑤ $[X]_R, [Y]_R \rightarrow [[X]_R [Y]_R]_{Adv}$ '오골오골, 외랑치랑'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3. 접두사 설정 기준을 형태면으로는 변화가 일어나 특정한 조건의 어기와 결합하여 의존성을 띠는 점, 분포면으로는 접두사는 분포의 제약이 심하다는 점, 기능면으로는 비분리성과 수식의 제한을 보인다는 점, 의미면으로는 실질 형태소가 의미 변화를 겪어 추상화된 단위가 접두사라는 점과 그 외 단음절성을 들었으나, 이 기준은 방언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26개의 접두사와 서사 무가에만 나타나는 6개의 접두사 의미를 분석하였다.

26개의 접두사와 사사 무가에 나타나는 6개의 접두사는 다음과 같다.

(1) 경-/적-/견-, ㄹ랑-, 놀-, 내-, 똥-, 개-, 꾀-, 춤-, 매-/맨-, 초-, 치-, 도-, 엇-, 웨-, 짓-, 다습-, 한-,

수(首)-, 금(金)-, 섭-, 늑단-, 웬-, 소(小)-, 아끈-, 왕-, 맞-

(2) 신-, 시-, 지-, 연-, 제-, 서-

4. 접미사 설정 기준을 기능면에서 통사 범주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 분포면에서 제약을 갖는다는 점, 의미면에서 어휘적 의미를 첨가하거나 제약을 가하고 파생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접미사로는 명사 파생 접미사 '-거리, -걸리, -치기, -대기, -싸리, -이/-앵이/-오이/-앙이, -청/-나청, -통이, -바치/-와치/-바시, -장이/-쟁이/-쟁이, -지기, -잡이, -님, -군, -생이, -아리/-어리, -아지/-야지/-오마지/-암지, -바디/-바데, -따시, -으랭이, -땡이, -치, -옴, -엉/-앙, -태기, -명/-망, -방, -쌀, -다리, -방맹이, -망둥이, -짱, -계/-개, -애, -기, -(으)ㄱ, -베기, -락, -우리, -에' 가 있고, 동사 파생 접미사 '-오-/-우-, -호-/-후-, -수-, -이-, -지-, -기-, -이우-, -뜨-, -치-, -히-, -리-, -아지/-어지, -추-, -흐-, -지-'를 들었고, 형용사 파생 접미사 '-압-, -엉/-앙-, -이롱-/으롱-, -흐-'와 부사 파생 접미사로 '-이/-기, -억/-약/-락, -우-/-후-, -영, -신, -직, -잇, -꿈, -딱'의 예를 보였다.

접두 파생 규칙은 $[[X]_{\text{ref}} [Y]_V]_Y$, $Y = [N, V]$ 로서 '똥소로기, 치달아'가 그 예이며, 접미 파생 규칙은 $[[X]_X [Y]_{\text{suffix}}]_Y$, $X = [N, V, \text{Adj}, \text{Adv}, R]$ 로 '걸바시, 맞지다, 늑잡다, 하영, 베통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제주 서사 무가 어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제주 방언에서 어휘 형성 원리를 살펴본 것이다. 어휘를 선정할 때 품사면이나 형성면으로 충분한 어휘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점은 과제로 남긴다.

목 차

<國文抄錄>

1. 서 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방법과 범위	2
1.3. 선행 연구 검토	3
2. 본 론	5
2.1. 도 입	5
2.2. 서사 무가의 어휘	6
2.3. 어휘 형성 범위	7
2.4. 합성어	8
2.4.1. 합성어와 구 구별 기준	8
2.4.2. 합성어의 배열 순서	12
2.4.3. 합성어 구조	13
2.4.4. 합성어 형성 규칙	14
2.5. 파생어	27
2.5.1. 접두사 설정 기준	29
2.5.2. 접두 파생 접사 의미	32
2.5.3. 접미사 설정 기준	41
2.5.4. 접미 파생어 유형	42
2.5.5. 접미 파생 접사 의미	47
2.5.6. 접두·접미 파생어 형성 규칙	53
2.5.7. 영변화 파생법	54
2.5.8. 내적 변화 파생법	55
3. 결 론	56
參考 文獻	59
<ABSTRACT>	62
<부록: 어휘 목록>	64

1. 서론

1.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제주 방언 중 서사 무가 어휘를 중심으로 제주 방언에서 서사 무가에 나타난 어휘 형성 원리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표준어의 단어 형성 논의는 매우 활발하여 통시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영역별로 접근 방법이 다양하여 광범위한 연구 결과물을 내어놓고 있다.

제주 방언도 국어학적 가치로 인해 활발하게 논의 대상이 되어 왔음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어휘 형성의 관점에서 제주 방언을 전반적으로 고찰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필자는 제주 방언의 어휘 자료를 서사 무가 본풀이에서 추출하여 어휘 형성 원리를 살피고자 한다.

사회가 변화·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낼 언어 표현을 필요로 할 때 기존의 언어 재료를 이용하면 매우 생산적으로 새로운 낱말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을 빌려다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방법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이용하여 합성이나 과생의 방법으로 새로운 사물에 관한 적절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제주 서사 무가의 어휘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어휘나 어구를 형성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서사 무가는 언어적 특징과 시적 특징(메시지)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종래의 대부분 서사 무가 연구 방법은 시적 특징에 관한 연구로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접근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문학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그 서사 구조를 규명하여, 고소설이나 민담과의 관계¹⁾를 통해 특성을 알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의(祭儀) 측면에서 무속 신화의 상징적 의미와 제의(祭儀) 기능을 설명하려는 작업이었다.²⁾ 이 밖에도 무속 신화와 제의(祭儀) 사이의 총체적인 관계를 규명³⁾하거나 서사 무가와 일반 무가 작시 원리를 각각 밝히는 현장론적인 연구⁴⁾도 있었다. 무가의 구연 특성에 관한 연구⁵⁾도 있었으나 이것은 국어학 측면이 아니라 신화의 신성성 획득을 위해 신화 화자의 서술 방식

- 1) 서대석(1980), 「한국 무가의 연구」, 문학 사상 출판부.
- 2) 현용준(1992), 「무속 신화와 문헌 신화」, 집문당.
- 3)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박사 학위 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 4) 박경신(1991), “무가의 작시 원리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 박사 학위 논문, 서울대 대학원.
- 5) 강유리(1992), “무속 신화의 구연 특성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서강대 대학원.

을 논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서사 무가를 오직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서사 무가의 언어적 특징을 고찰 대상으로 삼아 단어의 합성이나 파생 원리와 규칙을 찾고, 합성어 형성 모습을 살펴보고, 접두사와 접미사 종류를 정리하기로 한다. 서사 무가는 방언 자료 중 문학적인 가치와 입말 [口語]로서의 국어학적인 가치가 높다. 그런데 제주 서사 무가를 중심으로 서사 무가에 나타난 어휘 형성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제주 방언 전체에 관한 해답을 찾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그러나 이 연구가 제주 방언 어휘 형성법의 체계를 세우는 데 일조(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2. 연구 방법과 범위

서사 무가 본풀이 속의 어휘는 입말 [口語]로서 살아 있는 언어 활동으로 제주인의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세계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지역에 따른 음운 체계나 언중이 인식하는 언어 차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입말 [口語]이기 때문이다. 서사 무가의 입말 [口語]은 구연되는 것을 채록하여 놓은 것으로 언중의 생생한 언어 생활을 보여 준다. 그러나 무속 제의(祭儀) 가운데 실현되는 언어이므로 언중들의 입말 [口語]과는 다른, 무당 입으로 구송되는 특수한 성격을 또한 띠고 있다.

요컨대 무당이 긴 사설을 구송하는 데는 듣는 사람이 지루함이 없어야 하며 무당 자신도 그것을 모두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무가 본풀이를 살펴 보면 무가 사설이 지닌 어떤 특징적인 변-단어나 구의 반복-이 나타나므로 단어 형성 방법이나 구 형성 방법에 어떤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모든 단어는 이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하여 이 본풀이를 어휘 형성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어휘론의 범위에서는 어휘 형태론, 어휘 의미론 측면을, 소재면에서는 주로 제주 서사 무가 본풀이 부분을 택했으며, 동일한 내용이 민요로 불리어 질 경우는 민요의 어휘⁶⁾도 선택하였다. 「濟州島巫俗資料事典⁷⁾」, 「韓國의民間信仰⁸⁾」, 「朝鮮巫俗の研究 上⁹⁾」, 「南國의 巫歌¹⁰⁾」에 실려 있는 본풀이를 자료로 이용했다. 단어 형성면에서는 합성과 파생 측면을 살폈다. 어휘 형성 연구는 파생어 형성과 합성어 형성으로 크게 나누는데 파생어의 경우 접두사와 접미사를 분석하고, 그 구조와

6) 홍정표(1963), 「제주도 민요 해설」, 성문사.

7) 현용준(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8) 張壽根(1973), 「韓國의民間信仰」, 金花舍.

9) 赤松智城·秋葉隆(1937), 「朝鮮巫俗の研究 上」, 大阪屋號書店.

10) 진성기(1968), 「南國의 巫歌」, 제주도민속문화연구회.

생성 규칙을 염두에 두고 연구해 나가지만, 합성어는 그 구조 자체가 둘 이상의 어기(語基) 결합으로 이루어지므로 합성어와 구의 구조적 구분도 일차적 관심이 된다.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어휘 특징을 밝히고 목록을 작성하는 가운데 형태, 의미, 기능면에서 제주 방언을 어휘 형성의 공시적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휘 형성에 관한 전반적인 원리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제주 방언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통시적 관점도 택한다.

1.3. 선행 연구 검토

어휘 형성은 단어 결합, 접사 첨가, 어근 창조와 기타 방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단어 형성, 단어 조립, 단어 창조 등으로 불린다.

국어 어휘 형성에 관한 문법 연구는 주시경¹¹⁾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현배¹²⁾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였고, 이희승¹³⁾은 단어를 단일어와 합성어로 나누고 합성어는 다시 복합어, 첩어, 파생어로 나누고 파생어는 내적 파생어와 외적 파생어로 나누었으며, 접요어를 설정하였다. 이는 전통 문법에 바탕을 둔 품사론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분석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단어의 분류에 그친다는 문제점이 있다.

구조주의 문법에서는 김계곤¹⁴⁾, 김규선¹⁵⁾, 유목상¹⁶⁾의 연구가 있다. 김계곤(1968)은 사전적 분류를 통하여 300개의 접두사를 짜임새에 따라 나타내었는데 앞가지 파생법 중 품사를 바꾸는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선(1970)은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는 기준을 검토했으며, 유목상(1974)은 이전에 합성어로 처리되던 단어류를 통사론적 구성을 이룬 후에 다시 파생을 겪은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IC분석도 통사론적 관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어휘 형성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서정수¹⁷⁾, 정정덕¹⁸⁾, 이석주¹⁹⁾, 하치근²⁰⁾, 최규일²¹⁾, 송철

11) 주시경(1910), 「국어문법」, 경성박문서관, 「역대문법대계」 1-11 재록.

조어를 기뿔박굄과 기뿔렘, 기뿔박굄으로 나타낸다. 기뿔박굄과 기뿔렘은 파생법에, 기뿔렘은 합성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접두 파생의 예는 다루고 있지 않다.

12) 최현배(1961), 「우리말본」 열번째 고침, 경음문화사.

13) 이희승(1970),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14) 김계곤(1968),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논문집」 3, 인천교육대.

15) 김규선(1970), "국어의 복합어에 대한 연구", 「어문학」 23, 어문학회.

16) 유목상(1974), "통어론적 구성에 의한 어형성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5집.

17) 서정수(1981), "합성어에 관한 문제", 「한글」 173·174, 한글학회.

18) 정정덕(1982), "합성 명사의 의미론적 연구 - N1, N2 구조를 중심으로-", 한글 175, 한글학회.

19) 이석주(1987), "국어 어구성연구:복합어와 파생어의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박사 학위 논문, 중앙대.

20) 하치근(1987), "국어 파생 접미사 연구", 박사 학위 논문, 부산대.

21) 최규일(1989), "한국어 어휘 형성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 논문, 성균관대.

의²²⁾, 정동환²³⁾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서정수(1981)는 의미론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합성어와 구 구별 문제를 다루고, 정정덕(1982)은 'N1과 N2의 관계를 격문법'에 의해 설명하였다. 이석주(1987)는 접두사의 타당성 여부와 설정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하치근(1987)은 파생어 형성 규칙을 정밀화하였다. 최규일(1989)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법과 파생법에 관한 어휘 형성 원리와 규칙을 종합·정리하였으며, 송철의(1989)는 접미파생법을 다루면서 색채의 농도 차이를 '시-, 새-, 시-, 새-'의 내적 변화에 따른 파생을 내놓았다. 정동환(1993)은 복합어의 형태 구조와 의미구조의 상관성을 논의하였다.

그 후 어휘 음운론 관점에서 어휘부와 단어 형성을 다루거나²⁴⁾ 형태론적 관점에서 어휘부와 단어 형성을 다룬 논의가 있었다.²⁵⁾

제주 방언에서는 김홍식²⁶⁾, 송상조²⁷⁾, 강영봉²⁸⁾의 연구가 있다.

김홍식(1983)은 접미사에 관한 논의를 주로 했으며, 송상조(1991)는 제주 방언의 접미 파생에 대해 전반적인 고찰을 하였고, 품사론 영역에서 접근한 대이름씨 고찰도 있다. 강영봉(1993)은 색깔이나 특성에 따른 동물 이름을 제시하고 방언이 지니는 다양함을 보여 주었으며, '속담' '비유어' '금기어' '길조어' '수수께끼' '은어' '숙어' '인삿말' '무속어' '민요어' '공기어'에서 각각 몇 개의 예를 제시하여 합성어의 의미 변화를 다룬 연구도 하였다. 그 밖에 '무속 어휘'에 대한 논의로 박상규(1992)의

22) 송철의(1989), "국어 파생어 형성 연구", 박사 학위 논문, 서울대.

23) 정동환(1993), 「국어 복합어의 의미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24) 시정근(1993), "국어의 단어 형성 원리", 박사 학위 논문, 고려대.

25) 김창섭(1994),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 박사 학위 논문, 서울대.

26) 김홍식(1975), "색에 대한 소고", 논문집 제7집, 제주대.

——(1978), "제주도 지방의 지명에 대하여", 논문집, 제10집, 제주대.

——(1980), "제주도 방언 '가쟁이'어고", 논문집 제11집, 제주대.

——(1980), "비바리어고", 「현평효 박사 회갑 기념 논총」.

——(1982), "제주도 방언 '낭'어고", 논문집 제14집, 제주대.

——(1982), "접미사 '개'에 대하여", 「심여택 선생 회갑 기념 논총」.

——(1983),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고", 탐라문화 제2호.

'협'에 대한 소고에서는 제주 방언 'ㄱ새'를 '고스개'에서 변천되어 왔다고 보았다. 'ㄱ새'를 'ㄱ스개'의 'g'음이 약화 탈락되어 'ㄱ새'가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쟁이'어고에서는 '가쟁이'의 어근으로 '갯'을 제시하고 접미사 '양'과 다시 접미사 '이'가 복합되어 '앙이'가 umlaut현상에 의해 '앵이'로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바리어고'에서는 '비발'에 추상명사 '이'가 결합하여 '비발한 사람'이란 뜻으로 미혼여자를 지칭하는 말이 되어 버린 것이라 하였다. '낭'어고에서는 '낭'의 어원을 '나'로 잡고 접미사 '양'이 첨가된 형태로 보고 있어 제주 방언의 접미사가 어휘를 방언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서술하고 있다.

27) 송상조(1991),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법 연구", 박사 학위 논문, 동아대.

——(1992), "제주도 방언 사람 대이름씨에 관한 고찰",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28) 강영봉(1986), "제주도 방언의 어명 연구", 「논문집」 23, 제주대학교.

——(1990), "제주도 방언 관용어 범위", 「심전 김홍식 선생 회갑 기념 논총」, 제주문화.

——(1993), "제주도 방언의 동물 이름 연구", 박사 학위 논문, 경기대.

연구가 있는데 '큰애기덜', '심방'을 알타이 제어적인 면이 뚜렷한 어휘로 보고 있다.²⁹⁾

제주 방언의 접미 파생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방언 어휘에 관한 합성, 파생의 원리를 연구하는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2. 본 론

2.1. 도 입

일상 생활 속에서 화자와 청자는 음성 자질들 속에서 변별 자질을 뽑아 내도록 배워 왔다.³⁰⁾ 여기서 변별 자질은 무가 사설을 청취하는 중에 중요한 의미³¹⁾를 가려내는 데 쓰일 뿐 아니라 듣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데서 일상 언어와 차이가 있다.

무가의 사설은 조음적인 층위나 음향적인 층위, 청취적인 층위 가운데 어느 층위든지 언어 활동 참여자들은 일차적으로 무가의 의미를 파악하고 발화 강조점과 감정적인 부분을 가려 듣는다. 그런데 서사 무가 입말은 제차(祭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정한 의도 아래 진행되게 마련이어서 내용적인 층위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표현의 층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 입말 [11語] 이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표현의 층위에 사용되는 어휘들은 나름대로 일정한 규칙이나 원리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구 단위로 의미를 파악하거나 문장 단위로 의미를 파악하게 되더라도 먼저 어휘 연구가 선행되어야 어구나 통사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내용 전달을 쉽게 하려는 서사 무가 특징은 어휘 형성 방법이 자연히 유형화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예를 통하여 어휘의 유형을 뽑아내고 그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가끔 나오는 숙어나 속담도 다루고자 한다.

29) 박상규(1992), "제주무가와 민요에 나타난 어휘의 성격",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30) Roman Jakobson 著, 『일반 언어학 이론』, 권제일 譯(1994), 민음사. pp.48~52.

31) '가난호고 서난호난'을 청취하면 청자들은 의미 포착을 '가난호고'에서 끝내고, '서난호고'는 '가난호고'와 맞물리며 듣는 즐거움을 느끼는 단어로 이해한다.

2.2. 서사 무가의 어휘

여기서 분석할 대상 어휘는 제주도 무가의 본풀이 부분이다. 큰굿의 제차(祭次)는 기본 형식의 의례에다 무용을 주요소로 하는 <맞이>, 언어 표현을 주로 하는 <놀이>로 나뉘볼 수 있는데³²⁾ 의례와 행위 부분은 춤이나 극적 연출이 주를 이루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언어 표현이 중심이 되는 본풀이에 나오는 어휘를 주로 고찰하였다.

서사 무가 어휘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경우로는 박경신(1991)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박경신의 연구는 율격을 대상으로 작시 원리를 밝힌 것이므로 국어학적인 연구는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서사 무가 어휘 그 자체를 분석하여 어휘 형성 원리를 살핀다. 서사 무가 어휘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서사 무가는 읽기 위해 창작된 것이 아니라, 듣는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즉, 입말 [口語] 을 그대로 옮겨 놓아 입말 [口語] 의 특성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제주 방언의 생동감 있는 말의 현장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이들 어휘 속에는 제주인의 '의식주'는 물론 문화 전반의 다양한 어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속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어휘 자료가 매우 풍부하여 어휘 자료 확보에 용이하다.

셋째, 무당의 입으로 구송되기 때문에 무당 개인의 말버릇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하더라도 단어나 구 형성의 규칙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규칙성 서술에 용이하다.

서사 무가 어휘 속에는 무속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관련된 무속 어휘가 있는데, 주로 제차(祭次)와 관련된 어휘들로서 한 예로 '석살림, 등진드리, 당클, 영계올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수한 무속 어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언 어휘로서 무당의 입으로 구송되는 어휘를 살피는 것이므로 서사 무가의 어휘가 분석 대상이 된다.

32) 현용준(1980), 전게서.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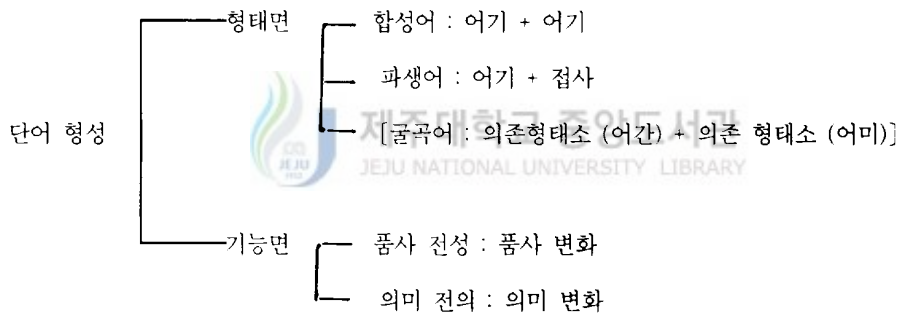
2.3. 어휘 형성 범위

어휘 형성이란 어휘 간의 결합, 접사 첨가, 어근 창조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이러한 어휘 형성은 언어 체계 속에서 하나의 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어휘 형성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형태면에서 합성의 경우로 어기³³⁾와 어기의 결합을, 파생의 경우로 어기와 접사의 결합을, 그리고 굴곡면에서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논의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것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기타의 방법으로는 혼성(Blending), 축약(Contraction), 따오기(Clipping), 두문자 약자 사용(Initial word), 중첩(Reduplication), 반복이 있다.³⁴⁾

둘째, 기능면에서 품사 변화로 인한 통사적 기능 변화와 의미면에서 의미 변화를 논의할 수 있다. 어휘 형성에서 합성은 기능면에서 의미가 전이되지만 하고, 품사가 변화되는 일은 없으나, 파생은 의미도 변화되고 품사도 전성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위의 도표는 형태론적 과정에 의한 어휘 형성 범위의 경우로 의미론적 과정에 따른 어휘 형성법으로는 차용이나 모방, 전환, 조작, 유추, 전의, 음성 상징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통사론적 과정에 따른 어휘 형성이나 비언어적 과정에 따른 어휘 형성, 명명법에 따른 어휘 형성법³⁵⁾이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33) 여기서 '어기'란 '어간'이나 '어근'을 통틀어서 말한다.

34) 최규일(1989), 전계서, p.11.

35) 상계서, p.12.

2.4. 합성어

2.4.1. 합성어와 구 구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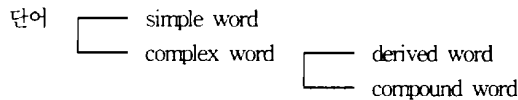
합성어³⁶⁾는 구성 성분들의 배합 양식이 다양하며 구와의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다. 특히 통사적 구성의 합성어는 구와 구별이 어렵다. 이에 대한 구분 기준을 보면 최현배의 경우 합성어 설정 기준을 '말머릿으로 말미암아 길러진 말마음'³⁷⁾이라 하였는데, 이는 주관적인 관점이다. Chomsky의 경우도 합성어의 설정 기준을 '언어적 직관'³⁸⁾이라 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하였다. Bloomfield는 '강세 유형, 어간 결합과 조어 방식의 특이성, 음성의 변화, 분리성의 불가'³⁹⁾ 등을 예로 제시하면서 언어에 따라 합성어의 설정 기준은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익섭⁴⁰⁾은 액센트를 구별 기준으로 정하였고, 김규선⁴¹⁾은 (1)휴지와 연결 (2)강세형 (3)음소의 변화 (4)어순 (5)구성 성분 간의 내적 확장 (6)외적 분포 (7)관용화를 들었다. 서정수⁴²⁾는 김규선의 연구를 토대로 합성어 설정 기준을 구문론적 기준, 의미론적 기준, 보조적 기준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이주행⁴³⁾은 '관용화에 의한 어의 변화 유무'는 모호한 기준으로 구와 구별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연접, 구성 성분의 배열 순서, 음소 변화의 유무, 구성 성분 사이의 내적 확장, 외적 분포'를 구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합성어에 두루 적용되는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국내의 학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6) ① 합성어와 복합어를 단일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동등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합성어를 복합어의 상위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합성어를 복합어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는 'complex word'를 합성어와 파생어의 상위 개념인 복합어라 부르고 compound word를 합성어라 부르겠다.



37) 최현배(1961), 전제서, p.678.

38) Chomsky, N.(1967), *Syntactic Structure*, the Hague, Mouton.

39) Bloomfield, L.(1933), *Language*, Holt, Rinehart and Winston, pp.227~233.

40) 이익섭(1967), "복합 명사의 액센트 고찰", 학술원 논문집 6.

41) 김규선(1970), 전제서, p.94.

42) 서정수(1990), 「국어 문법의 연구2」, 한신문화사. p.96.

43) 이주행(1981), "국어 복합어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86, 국어국문학회. p.67.

첫째, 구성 성분의 내적 확장 유무이다.

합성어는 내적 확장이 불가능하다. 합성어의 선·후행 성분은 긴밀히 결속되어 통사론적으로 단어들처럼 하나의 단어로써 문장 속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후행 성분 사이에 다른 요소를 넣을 수 없다.

예) 드딜팡 : *드딜 큰 팡

'드딜팡'은 '드디는 돌'로 '화장실에 걸쳐 놓는 납작한 돌'을 가리키는 말로서 '드딜'과 '팡' 사이에 다른 구성 성분을 넣을 수 없다.

그런데 대등 합성어인 경우는 내적 확장이 가능하며 [이딸, 어이와 딸] 선·후행 요소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합성어는 내적 확장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합성어와 구의 구별을 위한 보편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구성 성분의 배열 순서에 제약이 따른다.

합성어는 구성 성분의 배열에 일정한 순서가 있으나 구에서는 이런 제약이 별로 없다. 노대규(1988)는 합성어의 구성 성분 결합 순서를 9가지로 제시했는데 예외적인 것도 있으나 대체로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

예) 이딸 : *딸이

'어머니와 딸'이라는 뜻으로 '딸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웨오는다'와 '는다웨오'처럼 구성 성분이 배열 순서가 바뀌어도 별 의미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합성어는 순서의 제약이 따른다.

셋째, 외적 분포 관계면에서 합성어의 구성 성분이 지니는 외적 분포류가 구의 외적 분포류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족은딸'을 수식하여 '예쁜 족은딸'을 만들려면 '족은딸' 앞에 '예쁜'이 와서 '예쁜'이 '족은딸'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수식하는 것이 되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나 구 '족은 딸'을 수식하려면 '(몸이) 족고 예쁜 딸'이란 의미로 '예쁜'이 '족은'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수식한다는 통어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만약 구에서 '아주 족은 딸', '매우 족은 딸'이 성립하려면 '[(아주) (족은)] 딸', '[(매우) (족은)] 딸'이 되어서 '아주'나 '매우'가 '족은'을 수식한다는 통어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족은딸)', '(매우) (족은딸)'은 비문법적이다. 이처럼 구와 합성어는 서로 다른 외적 분포류가 형성된다.

즉, 합성어를 수식하는 것은 관형어나 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이다.

ㄱ. 구 : (아주 족은) 딸, 아주 (몸이) 족은 딸

ㄴ. 합성어 : *(아주) (족은딸), (예쁜) (족은딸)

넷째, 의미의 변화이다.

합성어는 각 성분이 독립된 단어였을 때의 의미와는 달리 구성 성분의 의미를 예측하기 어렵다. 합성어의 구성 성분이 지니는 의미는 각 성분이 독립된 단어로 쓰이는 구보다는 심한 의미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 족은아시, 팔즈긱히다, 왕구녁차다

'족은아시'는 '몸이 작은 아우'가 아닌 '막내 아우'를 가리킨다. '팔즈긱히다'는 '팔자를 더럽히다'의 뜻으로 '처녀 몸이 더럽혀 인생길이 막혔음'을 나타낸다. '왕구녁차다'는 '나이가 들다'를 의미한다.

다섯째, 합성어는 선·후행 구성 성분이 결합하면서 일부가 음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있다. 두 구성 성분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지면서 선·후행 구성 성분 중 일부 요소가 탈락하여 합성 명사를 형성하는데 두 성분 사이에 긴밀한 결속으로 사이소리 'ㅅ, ㅎ' 등이 나타나거나 ㄹ이 탈락하거나, 음절이 축약되는 경우도 있다.

예) 안 + ㅎ + 집 : 안집

우 + ㅅ + 아구리 : 옷아구리

솔 + 냥 : 소냥

어이 + 딸 : 이딸

여섯째, 합성어의 선·후행 성분이非同사적 합성어의 모습이거나 통사적 합성어처럼 결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문법적으로 그 기능을 달리하는 것이 있다.⁴⁴⁾ 합성어 '물것' '디딜광' '거은물'은 '물다, 디디다, 거을다'라는 타동사와 명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그러나 합성어가 되면서 선행 성분은 타동사의 기능을 상실하여 목적어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예) 물것 : 모기, 각다귀 따위

거은물 : 부모의 뜻을 기억하는 마음이나 감정

디딜광 : 변을 볼 때 디디고 앉게 걸쳐 놓은 넓고 얇은 돌

이러한 합성어와 구 구별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합성어의 유형을 나누려면 우선 IC분석 기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결합할 때, 이를 구조 또는 구성이라 하며 여기서 IC란 그 구조를 직접 형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을 뜻한다. IC분석 기준은 이익섭(1965)의 분석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으로 잡는다.

44) 강진식(1994), "현대 국어의 단어 형성 연구", 박사 학위 논문, 전남대, p.69.

첫째, 의미의 상관성이다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의미의 관련성과 타당성을 중시하여 구성 성분을 나눈다.

예) ① 진 돌음 ② 진 돌 음

위 예 ①에서 보듯이 우선 '진'(질다의 관형형)과 '돌음'(돌다의 파생어)으로 구분하여 '급하게 달리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 경우 그 의미 해석이 타당하며 합성어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예 ②로 분석하면, '진돌다'라는 합성 동사가 있어야 하고 그 후 다시 파생 명사화한 것으로 처리되어 타당성 있는 분석이 어렵다.

둘째, 대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합성어 내에서 동일한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소들은 동일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상호 대치 가능성에 근거하여 분석하는데 다음 예에서 알 수 있다.

예) 정짓간, 정짓무뚱, 정짓방석,

여기서 '정지(부엌)'와 '간', '무뚱', '방석'은 대치될 수 있다. '조왕간'이나 '돌래방석' 등이 그 예이다.

셋째, 독립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직접 구성 요소에 따라 나뉘어진 성분들은 자립 형태로 분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예로 '노님놀이'는 '노+녀+ ㅁ+ 놀 +이'로 분석할 수 있으나, IC분석에서는 일차적으로 '노님 + 놀이'로 나누어진 다.⁴⁵⁾ 이런 동일한 외적 분포로서 출현하는 합성어가 있다. '명석걸이'도 유사한 예로 '명석 + 걸이'로 나누어 분석하여야 한다. '걸이'는 완전한 자립성을 갖춘 단어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단어처럼 생산적이다.



이상으로 합성어와 구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IC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서사 무가 어휘의 합성어를 분석하였다.

45) Emile Benveniste 著, 「일반언어학의 제문제Ⅱ」, 황경자 譯(1992), 민음사. p.178.

'새로운 합성어에는 항상 두 개의 항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라는 에밀 벤베니스트의 견해는 두 개의 어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두 개의 항으로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2.4.2. 합성어의 배열 순서

이와 같은 IC분석으로 합성어는 이분법적 형태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이런 합성어를 유형별로 나누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눈다.

합성어를 이루는 구성 성분의 결합 방식이 국어의 통사 법칙에 맞는 경우 통사적 합성어라 하고, 이러한 단어를 통사적 합성어라 한다. 이런 경우는 '구와 비슷한 결합 방식'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예) ㄱ. 정짓간

ㄴ. 암창개

ㄷ. 소남

ㄹ. 디딜팡, 거은물

ㅁ. 이딸

ㅂ. 노념놀이

ㅅ. 모다들다

ㅇ. 귀궂다

ㅈ. 허우뜬다

위에서 ㄱ, ㄴ, ㄷ은 두 어기가 결합되면서 음운의 첨가, 변화, 탈락을 보이는 예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ㄹ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선행 어기가 후행 어기인 명사를 수식하는 구성으로 이는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체를 이루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된다. ㅁ은 명사 어기에 명사 어기가 결합한 구성이고, ㅂ은 선행 어기나 후행 어기가 과생 명사인 경우로 역시 통사적 합성어이다. ㅅ은 연결 어미가 결합된 구성이고, ㅇ은 명사 어기에 동사 어기가 결합한 구성이며, ㅈ은 부사 어기에 동사 어기가 결합한 구성으로 이들 역시 통사적 구성체를 이루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따라서 예 ㄱ부터 ㅈ까지의 합성어는 국어의 통사 법칙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통사적 합성에 의한 합성어로는 '합성 명사'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합성 부사' 등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주로 합성 명사와 합성 동사, 합성 부사를 다루었다.

다음으로 합성어를 형성하는 성분의 결합 방식이 국어의 통사 법칙에 따르지 않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다. 즉, 합성어를 이루는 구성 성분이 일반적인 국어 배열법을 지니지 않은 단어를 말한다. 비통사적 합성으로 지칭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표준어에서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 가운데 'S+V'의 형태가 아닌 것을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성기철의 견해와 풀이씨에만 국한시켜 줄기를 연결시키는 허웅의 견해 등이 있다. [김정은 1993:182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예를 통하여 비통사적 합성의 개념을 살펴 보기로 한다.

- 예) 가. 족수까락, 족새
- 나. 물것, 올췌
- 다. 사나다
- 르. 등글등글, 시원석석
- 미. 돌래방석, 돌래떡

ㄱ은 형용사 어기에 명사가 결합한 방식이다. ㄴ은 동사 어기에 명사 어기가 결합한 방식이다. ㄷ은 연결 어미 없이 동사 어기와 동사 어기가 직접 결합하였고, ㄹ은 연결 어미 없이 형용사 어기와 형용사 어기가 직접 결합하여 비통사적 합성 부사를 형성한 예로 선·후행 어기 형태가 동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ㅁ은 명사처럼 보이는 어기에 명사가 결합한 방식으로 선행 어기는 명사로 추정은 되나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품사도 분명하지 않아 불완전 어기로 취급될 수도 있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넣었다. [‘돌래’는 단독(자립명사)으로 쓰이지 않는다.]

2.4.3. 합성어 구조

첫째, 시간 표현과 관련된 합성어의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합성어의 어순에는 시간상 현재를 중심으로 앞선 시간과 화자가 관심 갖는 말이 먼저 나타난다.

예) 이딸, 이새끼

죽억살악

‘이딸’이나 ‘이새끼’의 경우는 ‘조상 - 후손’의 순서로 합성어가 고정된다. ‘죽억살악’은 현재 살아 있는 상태이므로 변모가 된다면 그 상태는 죽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은 상태가 현재보다 관심이 가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어순이 결정된다.

둘째, 공간 표현과 관련된 합성어는 한자와도 관련이 깊고 유교 의식과도 연관된다.

예) 우알, 상하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앞의 공간, 위의 공간이 먼저 온다. 그런데 ‘웨우는다, ㄴ다웨우’의 경우는 양쪽 다 실현된다.

셋째, 이해 득실에 따른 합성어는 화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을 따지는 것으로 안쪽에 위치하는 것이 바깥쪽보다 선행한다.

예) 드리칭칭내칭칭, 드리울려내올려, 들곰날곰, 오그력페웁, 느귀나귀

‘드리칭칭내칭칭’과 ‘드리올려내올려’의 ‘드리(內)’와 ‘내(外)’에서 ‘드리’가 ‘내’보다 선행한다. ‘들곰날곰’의 ‘들(人)’이 ‘날(出)’보다 선행하고 ‘오그력폐왓’의 ‘오그력(躋)’이 ‘폐왓(開)’보다 선행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이득의 측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인간 본연의 관습과 연관이 있다. ‘느귀나귀’는 피륙의 올이 일정치 않음을 나타내는 합성 부사이다. ‘느귀’는 ‘너의 가장자리’, ‘나귀’는 ‘나의 가장자리’로 표준어의 ‘들쭉날쭉’과 같은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화자 중심일 때는 ‘나귀느귀’라는 어순이 보편적이거나 이 경우는 그 반대이다. 이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아니므로 ‘느귀’를 먼저 배열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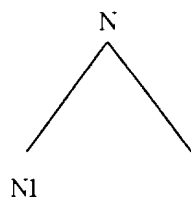
넷째, 원근에 따른 합성어로 화자를 중심으로 자신이 우선이고 상대방이 그 다음으로,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을 의미하는 단어가 우선한다.

예) 이레저레

2.4.4. 합성어 형성 규칙

1) 합성 명사의 세 가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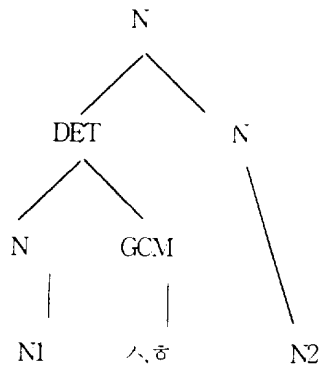
(1) N1 + N2 형



N = Noun 명사

- 예) ① 명사 + 명사 : 이새끼, 가막중생, 개중생, 마농송키, 오랍동승, 마바리, 짐심백, 굴왓, 각단밭, 무남, 물뜨쉬, 알아구리, 우알, 우씨, 알씨, 알자리, 상жат, 상마을, 상늘굽, 백몰레, 좇가심, 좇고고리, 당클, 옷앞슌, 관제슌, 버드낭슌, 흐를날, 선그뭇, 몰팡돌, 물팡돌, 질스미, 돌래떡, 두룽배, 예시잠
- ② 노님놀이, 놀음놀이, 살렘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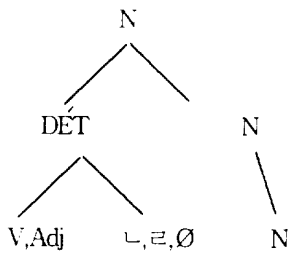
(2) N1+ 는, 은 + N2 형



예) 옷지방, 옷아구리, 냇빌레, 암창개, 안침, 암퇘, 쳇드리, 샛비, 질칸나이

DET = determiner, G.C.M = genitive case maker

(3) Det(는, 리, Ø) + N 형



V= verb, Adj= adjective

예) ① 관형사 + 명사 : 이녀, 시커림

② [동사 어간 + 는/리] + 명사 : 난여, 든여, 숨은여, 거은물(거신물), 거은드리, 산긱, 등진드리, 앓인제, 드덜광, 남썸돌굽, 싱근돌, 숨은모살, 벨진빳, 쌀물, 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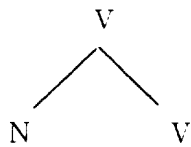
③ [형용사 어간 + 는] + 명사 : 진돌음, 든메, 애손드리, 올은드리, 애손므슴, 존소낭, 너븐드르, 진소리, 족은왓, 큰딸, 큰심방, 족은딸, 익은넝, 두린긱, 모인구둑

④ [형용사 어간] + 명사 : 족새, 족수까락

⑤ [동사어간] + 명사 : 물것, 올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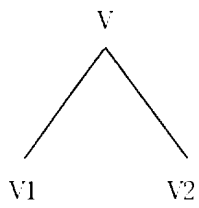
2) 합성 동사의 세 가지 유형

(1) N + V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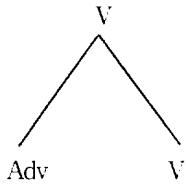
예) 성주뭇다, 코메다, 신발루다, 문잡다, 거넘ㅎ다

(2) V1 - V2 형



예) 나고가다, 가고보다, 돌아들다, 모다들다

(3) Adv + V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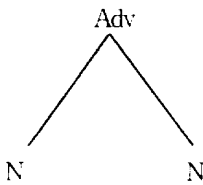


예) 허우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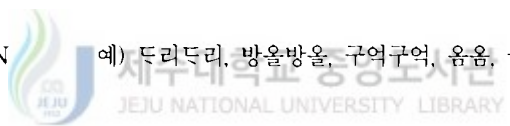
Adv = adverb

3) 합성 부사의 다섯 가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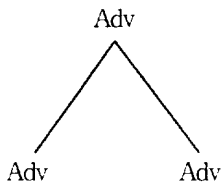
(1) N + N 형



예) 드리드리, 방울방울, 구억구억, 움옴, 궁기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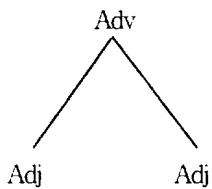


(2) Adv + Ad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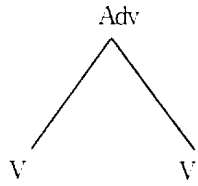
예) 이레저레, 종곰종곰, 새콤새콤, 들콤들콤

(3) Adj + Ad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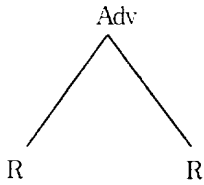
예) 숙숙, 둥글둥글, 어둑어둑

(4) V + V



예) 흥글흥글

(5) R + R 형



예) 오골오골, 허울허울, 가옥가옥, 으르릉으르릉

R= root

이러한 유형을 기준으로 합성어 형성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합성 명사

첫째, (1)과 (2)의 유형에서 N1 + N2의 합성 명사의 경우 두 명사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명사구의 존재를 설정할 수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처음에는 구 구조였던 것이 합성어로 변화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동의와당, 서의와당, 알엃넉, 우잇넉'은 속격 조사⁴⁶⁾에 따르면 분명히 구 구조이다. 이 경우 통사적 속격 구성의 구를 가지고 단어화한 것으로 보고 김창섭(1994:13)은 이를 구의 공시적 단어화라 부르고 있다.

둘째, (1)과 (2)의 유형에서 통사적 속격 구성의 구가 존재하지 않는 N1 + N2의 합성 명사는 규칙을 따로 정한다.

'가막중생, 마농송키, 노념놀이, 남도리' 등은 N1과 N2가 모두 독립적인 단어로 쓰이나 통사적인 속격 구성을 가지지 못한다. '노념'의 경우는 '노념을 허염구나'의 용법으로 통사부에서 명사로 운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노념이, 노념의 노념에' 등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통사적 속격 구성이 어렵다. 또한 '돌래떡, 두룽배'는 명사로 추정되는 선행 구성 요소 [불완전 어기에 따로 넣을 수도 있다] 와 명사가 연결된 합성 명사로 '돌래'는 '동그란' 형상을 의미하는 말이고 '두룽'도 '동그런' '두루 뭉친'의 뜻으로 후행 명사에 대해 형상, 모양의 특징을 갖는다. '남도리'⁴⁷⁾의 '남'은 단독형으로

46) Emile Benveniste 著, 전계서, p.182. Emile Benveniste는 의존 합성어라 부른다.

47) 상계서, p.180.

는 '남'(木)이나 여기서는 '남'으로 쓰여 '도리'의 재료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N1이나 N2가 서로에 대하여 형상이나 재료, 수단, 방법이 되는 경우는 양쪽 의미 관계를 포함한 속격 구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규칙을 따로 설정하여야 한다.

CN ⇒ [X]_N [Y]_N → [[X]_N [Y]_N]_N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만나 하나의 합성 명사를 만든다)

그런데 이 경우 사이 시옷(ㅅ)이 문제가 된다. 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다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⁴⁸⁾

ㄱ. 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A : 선행어, B : 후행어)

- ① A가 B의 형상인 경우 : 돌래떡, 돌래지, 두룽⁴⁹⁾배
- ② A가 B의 재료인 경우 : 남도리, 남박새기

①②의 경우 두 구성 성분은 의미상 근접 관계에 해당한다. 선행 요소 의미의 본래성이 지속되면서 후행 요소 의미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선행어가 후행어의 재료나 모양이기 때문에 자질로 보면 [+지속성][+일관성]의 의미 구조를 지닌다.

- ③ A가 B의 수단, 방법인 경우 : 물광돌, 물광돌, 개할망, 개하르방, 물물, 물막,
- ④ A와 B가 동격인 경우 : 선그릇, 종하님, 나록술, 그릇질, 무우남, 독막립, 곡석늘
- ⑤ A(유정명사)가 B의 기원인 경우 : 버랭이밥, 예시잠

ㄴ. 사이 나타나는 경우⁵⁰⁾

- ① A가 B의 시간 : 아침_ㅅ심
- ② A가 B의 장소 : 옷상실, 옷지방, 옷아구리, 젓⁵¹⁾날개, 짓간, 냇빌레, 셋비, 텃궁기, 텃니망, 머릿곱, 담고망, 안집⁵²⁾
- ③ A(무정명사)가 B의 기원 : 낭가쟁이, 걸렛배, 멍석걸이

Emile Benveniste는 하나는 '속성', 하나는 '외형'을 나타낸다고 보았으며, 그 예로 <papier- monnaie>를 제시하여 <papier qui est de la monnaie - 화폐인 종이>로 해석되어 'qui est'라는 집합점을 끌어낸다.

48) 김창섭(1994), 전계서, pp33~37.

49) 방언에서는 '두룽'은 '두룽-건지', '두룽-싸움'으로 나타나는데 '두르다'는 중세 국어에 「行窩에 도즈기 들어(械廟行窩(龍2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두르다/들르다'의 어근과 '웅'이 결합하여, 파생된 명사가 하나의 어근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가막'이 '감다'의 어근과 '-악'이 결합된 것처럼 말이다.

50) 이 경우 '표기상 사이 나타나고 발음으로 실현되는 경우'와 '발음에만 사잇 소리로 사이 나타나고 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아침_ㅅ심'은 발음상 'ㅅ'이 나타난다.

51) 이 때의 '젓'은 '겉'의 방언

52) '안집'과 '안침'이 있다. 전자는 '집의 위치가 안쪽에 위치한 경우'를 가리키고, 후자는 '침승의 내장'을 가리킨다. 전자는 [안집], 후자는 [안침]으로 발음된다.

④ A가 B의 용도 : 정짓방석, 풀직거리

⑤ A가 B의 고유 명사 : 느진덕정하님

이 경우 의미면에서 서로 포섭 관계이다.

ㄷ. 사이 전혀 출현할 수 없는 경우

병렬 구성의 복합어로 상하, 우알, 이새끼 등이 있다. 이를 의미 상관 관계에서는 상보 관계로 본다. 선·후행 의미가 서로 배타적이며 각각 고유의 본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 두 구성 요소는 '접속 조사'가 생략된 등위 연결이며, 두 요소 중 어느 하나가 우위를 차지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의미 관계에서 융합 관계를 형성하는 합성어도 있는데, '안침'이 그 예로 [-지속성][-일관성]의 관계를 지닌다.

이제 이를 다시 규칙화하면 $CN \Rightarrow [X]_N, [Y]_N \rightarrow [[X]_{NR} \wedge / \text{ㅎ} / \emptyset]_{DET} [Y]_N$ ⁵³⁾이다.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와 만나 합성 명사가 되는 경우 '스', 'ㅎ' 음이 두 성분 사이에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병렬 구성의 복합어를 제외하고는 의미면에서 중심어 우측 규칙⁵⁴⁾을 적용하고 있으나 방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막중쟁'과 '마농송키' '물므쉬'는 모두 좌측의 구성 성분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결정된다. 또한 '백벼름' '질스매', '걸음발'도 표준어와 결합 순서가 달라 중심어 우측 규칙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들을 표준어로 바꾸면 '바람벽', '소매길이', '발걸음'이다. 이러한 합성어는 표준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형과 명사가 만나서 합성 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즉, '동사 어간 + ㄴ/르 + 명사'에서 ㄴ인 경우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르은 '현재 그러한'을 의미한다.

① 동사

ㄱ. 난여, 든여, 숨은여, 숨은모살, 거은드리, 등진드리, 앓인제, 거은물, 남썸돌굽, 거신산

ㄴ. 드딜팡, 느릴목

② 형용사 + ㄴ + 명사

익은넝, 진돌음, 두린굿

③ '족수까락'의 경우는 형용사의 어근에 명사가 직접 연결된 경우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나 합성

53) 그 외에도 김창섭은 합성 명사의 개별 규칙도 정하였다. '집' '방' 따위가 합성어의 제 2요소로만 쓰이는 예를 통하여 단어 형성 규칙을 또 하나 상정하고 있다.

54) 강진식(1994). 전계서, p.90.

합성어를 형성하는 성분 중 우측 성분이 중심어가 되고, 삼투(percolation) 장치에 따라 그 합성어의 상위 단어의 범주가 정해진다. 이를 중심어 우측 규칙이라 한다.

규칙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규칙화하면 $CN \Rightarrow [X]_{AdjV}, [Y]_N \rightarrow [[X]_{AdjV} \text{ㄴ/ㄹ/ㄷ}]_{DET} [Y]_N$ 이다.

(선행 성분이 동사나 형용사인 경우 후행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만들 때 'ㄴ', 'ㄹ'이 끼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앞에서 열거한 합성 명사의 규칙들을 정리하면

- (1) $[X]_N, [Y]_N \rightarrow [[X]_N [Y]_N]$ 예) 이새끼
- (2) $[X]_N, [Y]_N \rightarrow [[X]_{NR} \text{ㄴ/ㅎ/ㄷ}]_{DET} [Y]_N$ 예) 옷지방, 질칸나이, 예시잡
- (3) $[X]_{AdjV}, [Y]_N \rightarrow [[X]_{AdjV} \text{ㄴ/ㄹ/ㄷ}]_{DET} [Y]_N$ 예) 돈메, 디딜팡, 족새

2) 합성 동사

(1)(2)(3)을 다시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ㄱ. $[N + V]V$ 형 : 거넘ㅎ다, 밋겹ㅎ다, 성주뭏다, 구덕잃다, 귀긫다, 몸받다, 신발루다,
- ㄴ. $[V1 + V2]V$ 형 : 돌아들다, 나고가다, 가고보다
- ㄷ. $[Adv + V]V$ 형 : 허우튼다⁵⁵⁾, 잘되다

위의 ㄱ항에 제시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즉 'ㅎ다'에 따른 연결형과 'ㅎ다가 아닌 동사'에 따른 연결형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 ① ㅎ다 형 : 거넘ㅎ다, 밋겹ㅎ다, 곡(哭)ㅎ다
- ② ㅎ다가 아닌 형 : 성주뭏다, 굽가르다, 구덕잃다, 귀긫다, 몸받다, 신발루다, 브름들다

이 두 가지 유형은 '거넘을 ㅎ다, 밋겹을 ㅎ다, 곡을 ㅎ다, 성주를 뭏다, 신이 발루다, 브름이 들다'처럼 대격이나 주격이 생략되어 합성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①의 'ㅎ다'형은 과생어에서 다루는 'ㅎ다'형도 있다. 그 경우는 방언에서 가장 생산적인 경우로 선행 요소가 불완전한 어근인 과생 접사 부분에서 다루었다. 합성어의 'ㅎ다'형은 한자어나 고유어와 결합한 경우로 역시 생산성이 뛰어나다.

55) '허우'는 '헐지 말앙(진초54)'나 '허튼술(진초54)'에서 보듯 '헐다(홀다)'에서 온 말이다. '진초'란 '진성기 『南國의 巫歌』 초공본'을 말한다.

ㄱ항의 합성 동사는 일반적으로 구 구조에서 합성어 구조로 어휘화된다. 또한 선·후행 성분의 의미가 제3의 의미로 전이(轉移)되기도 한다. 그래서 합성어는 관용어와 연관되게 마련이어서 관용어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① 꼴리나다 : 눈밖에 나다
- ② 왕구녁차가다 : 나이가 들다
- ③ 구덕잃다 : 아이를 잃다
- ④ 인정걸다 : 돈을 내다
- ⑤ 눈트다 : 기억하다
- ⑥ 그릇내다 : 길들이다
- ⑦ 뇌염들르다 : 동이 트다
- ⑧ 옷앞쌌모도치다 : 정조를 지키다
- ⑨ 코타주다 : 일을 그르치다

이들은 습관적인 말 사용에서 비롯되기에 관용 표현이란 용어를 쓴다. 예 ①~⑨는 통사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간주해도, 단어와 같은 구실을 한다. 즉 관용어, 관용구, 관용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합성어가 관용화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후행 성분을 대립 단어로 대치하여 대치가 이루어지면 보편적 구조이고 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용어로 간주할 수 있다⁵⁶⁾고 한다.

- ① 꼴리 나다 → *꼴리들다
- ② 왕구녁차다 → *왕구녁비다
- ③ 브름 들다 → 브름 나다

위의 예 ③은 비관용어에 해당한다. 관용어는 모두 합성어의 범주에 드는 것이지만 이를 다시 분석해 보면 어떤 것은 원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제3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래서 이를 세분하여 속어나 연어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⁵⁷⁾ 또한 관용어의 범주에는 '속담, 고사성어, 비유어, 금기어, 길조어, 수수께끼, 은어, 속어'가 있는데 제주 서사 무가 어휘에서도 많은 관용어가 발견되며 이를 부

56) 강진식(1994), 전계서, p.127.

57) 이희자(1995),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대동문화연구」 제30집, 대동문화연구소, 성균관대학교, p.414.

록에 자료로 제시하여 놓았다.

ㄴ항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연결 어미에 의한 경우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문장 속에서 두 동사의 연결형, 합성 동사, 보조 동사의 내포 구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합성 동사인 지 그 구별이 쉽지 않다. 따라서 통사적 구성 속의 이은말과 합성 동사의 구별을 제대로 해내야만 합성 동사의 형성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은말과 합성 동사의 구별 방법으로는 만약 합성 동사라면 '-어-/-아'형은 당연히 하나의 동사 어간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다른 요소가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된다. 최현배(1961)는 '-어-/-아'의 용법을 '접속법'과 '자격법'으로 구분하였는데 자격법으로 '-어-'가 쓰인 경우가 합성 동사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 방언에 적용해 보면

예) 돌아들다 : 그는 돌아들었다 → *그는 돌아(서) 들었다
 그는 돌았다 → *그는 들었다
 그는 돌아들었다 → *너도 (그렇게) 들어라.

이 경우 '서'가 끼거나 '어' 앞의 V1동사를 대동사화 할 수 없다. 따라서 '돌아들다'는 한 덩어리의 합성 동사로 처리한다.

그런데 무속 어휘에 자주 등장하는 '맞다류 [회여 맞다, 비여 맞다, 절아 맞다, 감아 맞다, 꺾어 맞다]' 또한 합성 동사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합성 동사는 아니다. 다음의 예를 보자.

예) 가시낭을 회여 맞자 → *가시낭을 회여(서) 맞자.
 가시낭을 회자.
 *가시낭을 맞자. (이때 '맞다'는 '맞다(迎)'가 아니라 '버리다'의 의미로 棄가 아닌 완결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마치 합성 동사의 모습과 똑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미면에서 '맞다'는 새로운 의미를 재생산하지 못하며 '맞다' 앞의 동사에서 이미 그 의미 자질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속 어휘 '회여 맞다, 감아 맞다, 비여 맞다, 치와 맞다, 거꺼 맞다, 벌러 맞다'의 '맞다'는 표준어의 '버리다'에 대응시켜 볼 수 있는데, 최근 표준어에서 이 보조 동사를 '준자립 형태'나 '접미사의 범주'로 처리하고 있다. '맞다류'의 동사들은 '서'라는 접속법을 쓸 수 없으며, '맞다' 앞에 선어말 어미류가 개입할 수 없어³⁸⁾ '-어맞다'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합성어 '돌아들다'

에서는 '들어들-'이 하나의 어간으로 나타나고, 보조 동사가 연결된 '맞다류'의 '-어맞다'에서는 '-맞'이 일종의 어미화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어맞다'는 특별한 의미 없이 완결성을 더해주므로 마치 어미나 접미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것을 어미나 접미사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동사로서의 독립적인 구실과 합성어의 구성 성분으로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여 보조 동사로 처리한다.

ㄴ항의 '-고-형'은 '-어-/-아-'형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합성 동사이다. 그러나 표준어에서는 '-고-형'이 '-어-/-아-'에 비해 덜 생산적이다.

ㄷ항의 경우 '허우뜬다'의 '허우'는 '헐다'라는 동사에 '-우'라는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 후 '뜬다'와 합성된 동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상으로 합성 동사의 형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헐다'형의 경우는 생산적인 합성 동사를 형성하고, '헐다 아닌' 형의 경우는 구 구조에서 합성 동사 구조로 어휘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을-/-이-/-가' 등이 생략됨을 보였다. 이렇게 결합한 선행 구성 요소는 의미 변이가 나타난다. 그 예로 관용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결 어미가 끼어든 합성 동사와 부사와 동사가 만나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 동사도 있음을 밝혔다.

합성 동사의 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X]v, [Y]v → [[X]v-어-/-고-]Adv, [Y]v]v 예) 모다들다
(선행 동사와 후행 동사가 연결 어미 '-어-', '-고-'로 결합한다)
- (2) [X]N, [Y]v → [[X]N, [Y]v]v 예) 거념헐다, 그릇내다
(후행 성분은 '헐다'이거나 '헐다 아닌' 동사로 선행 성분인 명사와 결합한다)
- (3) [X]Adv, [Y]v → [[X]Adv, [Y]v]v 예) 허우뜬다
(선행 어기인 부사와 후행 어기인 동사가 결합한다)

3) 합성 부사

제주 방언의 부사 중 외형상 어기가 반복된 것처럼 보이는 반복 부사들은 지금까지는 반복 파생으로 처리하거나 [송상조 1991:14], IC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합성어, 또는 파생어로 처리할 수 있어 부사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58) 최용환(1994). "보조 용언 구성의 형성적 원리", 『문학과 언어』 15집, 문학과 언어 연구회, p.72.

(1) 동일한 어기 반복

(가) 불완전 어기 반복

오골오골, 소랑소랑(스랑스랑), 니울니울, 조단조단, 우막우막, 무룩무룩, 와글와글, 오송
오송, 오망오망, 허울허울, 가옥가옥, 으르릉으르릉, 편편, ㄴ웃ㄴ웃, 메쪽메쪽, 돌각돌각, 어알어
알, 문들문들, 바롱바롱, 코송코송, 팻닥팻닥, 지락지락, 왕왕, 쟁쟁, 송송, 오득오득, 펑펑

(나) 명사 반복

- ① 드리드리 : '드리'는 순서라는 뜻으로 쓰인 비유적 의미의 단어로 '차례대로'라는 부사로 바뀌었다.
- ② 방울방울 : '방울'은 열매를 세는 단위인데 방울이 반복하여 쓰임으로써 '열매가 달려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 ③ 궁기궁기, 구역구역, ㄹ디ㄹ디 : 이들도 명사를 반복하여 만든 합성 부사이다.
여기서 'ㄹ디'는 '못다'에 과생 접사 '-이'가 붙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명사이다. 이
외 'ㄹ작'도 있는데 '못다'에 '-악'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명사이다. 'ㄹ디'와 'ㄹ작'의 차이
는 전자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을 가리키고, 후자는 인위적으로 생긴 것을 가리킨다.

(다) 부사 반복

- ① 츠침츠침
- ② 이레저레

(라) 형용사 어기 반복

- ① 어둑어둑 (어둑다)
- ② 둥글둥글 (둥글다)
- ③ 속속 (속다)

(마) 동사 어기 반복

- ① 흥글흥글 (흥글다)

(바) 과생 명사 반복

- ① 음음 (오다)
- ② 느려음느려음 (느려오다)
- ③ 싸음싸음 (싸오다)

(사) 과생 부사 반복

종곰종곰, 새곰새곰(시금시금), 들콤들콤, 자작자작, 물락물락, 소곡소곡, 촉신촉신, 푹릿푹릿
누릿누릿, 펜직펜직, 선득선득, 소닥소닥



(2) 비슷한 어기 반복

비슷한 어기란 구성 성분의 일부가 변동을 일으켜 결합된 단어를 말한다.

(가) 음운 또는 음절이 교체된 합성어

와랑치랑, 와라치라, 와낭자낭, 흥당망당, 엄방딤방, 오망삭삭, 오조조조, 어식비식, 아리
롱다리롱, 어렁떠렁, 어러어떠러렁, 어주리비주리, 우묵주묵, 울룽출룽, 호웅지웅, 비비둥
둥, 웅방참방, 왕강싱강, 영기덩기

(3) 상이한 어기 반복

(가) 파생된 두 어기의 결합

곶이첩첩 : 곶(曲)+이 + 첩첩 : 명사 + 부사

지리넘넘 : 질(汲)+이 + 넘넘(넘다의 어기반복) : 부사 + 부사

올리동동 : 오르(登)+이 + 동동 : 부사 + 부사

드리쿵쿵 : 들(入)+이 + 쿵쿵 : 부사 + 부사

즈지반반 : 좇(類)+이 + 반반 : 부사 + 부사

(나) 어근끼리 결합된 합성어

시원석석 : 시원(흐다) + 석석(흐다)

울쨍울쨍 : 울(다) + 쨍 + 울(다) + 북

느귀나귀 : 느(너) + 귀(邊) + 나 + 귀(邊)

위 예 (1), (2), (3)에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섞여 있다.

일반적으로 비통사적 방법에 의한 합성 부사의 결합 양상으로는 '동사 어기+동사 어기', '형용사 어기+형용사 어기', '명사 어기+부사 어기', '부사 어기+관형사 어기', '불완전 어기+불완전 어기' 등이 있다. 통사적 결합 부사의 양상으로는 '부사 어기+부사 어기', '명사 어기+명사 어기' 등이 있다. 제주 방언의 부사들은 비통사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단어가 많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중 선·후행 어기가 모음 교체, 자음 교체, 음절 교체의 양상을 보여 이를 내적 파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불완전 어기는 단독으로 의미를 알기 어렵고 품사도 알 수 없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1)의 경우를 살펴 보자. (1)은 모두 합성어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은 합성된 후 내적 파생에 의해 다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예) 새곰새곰 → 시금시금

소곡소곡 → 수국수국

프릿프릿 → 푸릿푸릿

산득산득 → 선득선득

그런데 (2)-(가)는 합성되면서 음운이 교체한 것으로 보아 장애성이 큰 자음 [ㄷ, ㅂ, ㅅ, ㅈ, ㅊ] 이 들어 있는 부분을 반복부로 보고, 발음의 편이를 위해 음운이 탈락, 교체한 비반복부가 이 반복부보다 선행하여 합성한 단어로 보고 있다.⁵⁹⁾ 여기에서도 합성으로 다룬다. (3)-(가)는 선행 어기는 과생되고 난 후, 후행 어기와 결합하는데 이를 합성으로 보아야 타당할 듯하다. (3)-(나) 또한 어근끼리의 결합으로 합성어로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동안 반복 과생으로 처리되던 단어 [송상조 1991:135] 를 필자는 반복 과생으로 보지 않고, 어기와 어기의 결합인 합성어로 처리했다.

부사 형성 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X]_N, [Y]_N → [[X]_N {Y]_N]_{Adv} 예) 방울방울, 궁기궁기

(명사 어기와 명사 어기가 만나 부사가 된다)

(2) [X]_{Adv}, [Y]_{Adv} → [[X]_{Adv} {Y]_{Adv}]_{Adv} 예) 촛촛촛촛

(부사 어기와 부사 어기가 만나 부사가 된다)

(3) [X]_{Adj}, [Y]_{Adj} → [[X]_{Adj} {Y]_{Adj}]_{Adv} 예) 어둑어둑

(형용사 어기와 형용사 어기가 만나 부사가 된다)

(4) [X]_v, [Y]_v → [[X]_v {Y]_v]_{Adv} 예) 흥글흥글

(동사 어기와 동사 어기가 만나 부사가 된다)

(5) [X]_R, [Y]_R → [[X]_R {Y]_R]_{Adv} 예) 오골오골, 외랑치랑

(불완전 어기와 불완전 어기가 만나 부사가 된다)

(1)항의 경우는 선행 구성 요소가 일단 명사로 과생된 후 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있으며, (2)항의 경우는 선행 구성 요소가 먼저 과생 부사의 형태를 띠고, 후행 부사 또한 과생 부사의 형태로 반복하여 만들어진다는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반복 과생이라 하지 않고, 합성어에 넣었다.

59) 남승현(1990), "현대 국어의 반복 부사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충남대 교육대학원, p.25

2.5. 파생어

파생어 형성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접사에 따른 파생과 접사에 따르지 않은 파생으로 나눌 수 있다. 작게는 네 가지로 접사에 따른 파생을 접두 파생과 접미 파생으로 나누고, 접사에 따르지 않은 파생은 내적 파생과 영변화 파생으로 나눈다.

접사에 따른 파생어는 형식부인 접사가 결정적인 구실을 하여 품사를 전성시키거나 의미를 더하는데 이러한 파생어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서로 의존적이며 합성어에 비해 의미상 서로 밀착되어 있다. 그리하여 단어의 기본 의미에 의미를 첨가하는 특징을 지닌다.

예) ㄱ량정의 : '쥐' 가운데 크기가 작은 쥐를 가리킨다.

맥이다 : 주동의 기능이 아니라 '-이-'에 의해 사동의 기능을 지닌다.

둘째,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통합되는 자리에 형태음소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결과로 어근이 변동을 입거나 접사가 변동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제주 방언은 '-이/-앙이/-앙지/-앵이/-오이' 등 음소적 변동으로 다양한 이형태를 보인다.

예) 꿀랭이/꿀랑지, 버랭이/베랭이

셋째, 파생어는 형태론적 변형이나 통사론적 변형이 생기는 특징이 있다.

① 여기에 접사가 결합되면서 형태론적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ㄱ. 앓다 : 앓-지-다 (사동)

은제(銀著) 두 게 걸천 놓고 아기 앓전 베투 보난

연조새 앓아

타다 : 테-우-다 (사동)

하늘에서 테운 과거로다.

나다 : 나-수-다 (사동)

천스망 만스망을 나수웁고

들다 : 들리우다 : 들-이우-다(사동)

좁 들리우는 약 타당

쿰다 : 쿰-지-다 (사동)

즈청비가 소개를 가슴 데레 쿰지멍

먹다 : 맥히다 (피동)

머울이 맥혔고나

박다 : 백-이-다 (피동)

양단독지 금산사별이 오송송이 백인 듯한 아기씨가

ㄴ. 섬지기 : 섬 -지기

섬지기 말지기 불르라

몽생이 : 몽 -생이

백강생이 흰 머리가 꿈지에 물을 적저

ㄷ. 흐김(60) : 흐 -김

흐김 시난 또 와릉탕와릉탕 소리가

ㄹ. 노피 : 노프 -이

늦이 : 늦 -이⁶¹⁾

노피 들링 늦이 시르르 비읍소서

② 통사론적으로 위의 예 ㄱ, ㄴ은 동심 구성 파생어이고, ㄷ, ㄹ은 이심 구성의 파생어이다. 위의 예 ㄷ, ㄹ은 통사론적 변형이 일어나 문법 구조가 바뀐다. 예 ㄱ은 품사의 변형은 없으나 통사적 성분이 바뀌었고, 예 ㄴ은 비통사적 변형 구조이다.

넷째, 제주 서사 무가 어휘 속에는 생산적인 파생 접사와 비생산적인 파생 접사의 결합에 따른 특성을 지닌다.

ㄱ. 생산적인 접사 : 웨

웨딸, 웨아들, 웨지동, 웨불휘, 웨송애, 웨돌철귀

ㄴ. 비생산적인 접사 : 촛

촛나록



60) 중세 국어의 '헉다, 흑다, 흑다(小)(細)'

허근 선비를 보시고(引見小儒)<용82>

효근 니피 뗏고(浮小葉)<杜初7:5>

하근 마늘(小蒜)<救方1:33>

61) 어휘 규칙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낱말이나 일반 표준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2.5.1. 접두사 설정 기준

접두사는 어근이나 어간 앞에 위치하여 어간, 어근의 의미를 한정해 주는 접사이다. 여러 학자들이 접두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을 보면 '어근 앞에 붙고 독립성이 없으며 단음절이고, 문법적 기능이 없이 의미 변화만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런데 접두사는 설정하기가 다소 어렵다. 그것은 기원적으로 명사나 동사의 어간 같은 실질적인 형태소로부터 접두사로 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두사가 명사 앞에 놓일 경우 관형사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접두사가 동사 앞에 놓이는 경우는 부사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합성어의 선행 요소와 접두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국어의 접두사는 기원적으로 고유어 접두사, 한자어 접두사, 외래어 접두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자 접두사인 경우는 어근과 접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접두사 설정 문제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 점은 제주 방언도 마찬가지이다. 한자어 중 접두사로 쓰이거나 동시에 접미사로 쓰이는 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로 처리해야 한다고 최규일(1989:132)은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접두사를 다른 어근과 구별하고, 제주 방언에서 한자어 접두사에 해당하는 몇 개를 제시한다.

접두사와 다른 어근을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두사와 관형사의 구별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이는 분포의 제약성을 가지고 설명한다. 접두사는 관형사보다 분포의 제약을 크게 받는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예) 새 지동, 새 불휘, 새 책, 새 화단

웨지동, 웨불휘, *웨책, *웨화단

관형사 '새'보다 접두사 '웨'는 분포의 제약을 훨씬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사와 접두사의 구별 문제이다.

문장에서는 부사의 위치 이동이 자유로우나 접두사는 위치 이동에 제약이 따른다.

예) *너가 건 죽은년을 밀어시냐?

너가 죽은년을 건밀어시냐?

예) 너가 죽은년을 자락 밀어시냐?

너가 자락 죽은년을 밀어시냐?

너가 자락하고 죽은년을 밀어시냐?

부사 '자락'은 문장에서 이동이 자유로우나 접두사 '건-'은 이동이 어렵다. 또한 이재성(1990:23)은 의성어나 의태어는 '-하고'를 연결할 수 있으나, 접두사는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합성어의 선행소와 접두사의 구별이다.

합성어의 선행 구성소와 접두사의 구분은 주로 두 요소가 결합하여 의미가 변화한 선행 구성소가 독립하여 쓰였을 때 비유적 의미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⁶²⁾는 접두사가 아닌 합성어의 선행 요소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명사에서 접두사화한 요소로 구별한다.

접두사는 어근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비자립요소이나, 합성어의 선행소는 어근과 분리하여 독립하여 쓸 수 있다. 또한 접두사가 분리하여 쓸 수 있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고, 만약 쓴다면 접두사의 의미가 사라지고 본래 의미로 회귀(回歸)하여 버린다.

예) ㄱ래비 ‘ㄱ래-’는 접두사로 ‘몹시 큰’의 뜻이다.

족은딸

‘ㄱ래비’의 ‘ㄱ래’를 단독형으로 쓰면 포유류 ‘고래(鯨)’의 의미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ㄱ래-’는 접두사로 처리한다. ‘족은딸’의 ‘족다’와 ‘딸’은 각각 독립하여 쓸 때 그 의미가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족은’은 합성어의 선행 요소이다.

이제 접두사 설정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면에서는 형태 변화가 일어나 특정한 조건의 어기와 결합하여 의존성을 띤다.

접두사 그 자체로서는 독립성이 전혀 없는 형식이며, 본래 의미를 갖고 독립하여 쓸 수 없다.

예) ① 옷상실 : 옷 + 상실

② 우알

표준어에서는 ‘옷- 윗-’을 접두사로 처리하나 제주 방언에서는 접두사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단어의 맨앞에 놓이면서 단일 명사이며 어근으로 나타나 실행되기 때문이다. ‘우알’의 경우는 두 구성 성분이 형태상 평행을 이루면서 동등한 의미 영역을 갖고 대등한 관계로 결합한 합성어로 우알 - *알우(ab - *ba) 형의 대표적인 합성어이다.

표준어에서는 ‘옷-’을 명사에만 붙는 접두사로 처리했으나 제주 방언에서는 ‘우’는 명사·동사에 모두 붙는 어근이다. ‘우’의 의미는 ‘본래의 것에다 더하여 주는’, ‘상부 관청’의 의미로 나타나는데 단독으로 실행되기도 하며, 반의어로 쓰이는 ‘알’ 또한 단독으로 쓰여 어근으로 처리해야 한다.

‘우’나 ‘알’이 나타난 다양한 예로는 ‘우울리며, 우윗녁, 옷지방, 우알로, 우씨, 우거리다, 옷제반, 알씨, 알엿녁, 알자리, 알제반, 알거리다’ 등이 있는데, ‘우’는 후속 어근의 연결이 자유롭고 어원적 의미에서 크게 약화하거나 변화하지 않고 본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접두사 자질이 없다.

둘째, 분포면에서는 분포의 제약이 심하다

62) 이재성(1990), “국어 접두 파생법에 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연세대. p.24.

‘좀만하다, 말만한 처녀’의 ‘좀’, ‘말’은 독립하여 쓰면 비유적 의미가 남아 있어, 합성어의 선행요소로 처리한다.

접두사는 뒤에 오는 형태소가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뒤따르는 어근을 제한하는가의 여부로 접두사를 설정할 수 있다. '건-'은 '세계, 함부로'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로 '밀다, 밀리다' 이 외의 어기와는 결합하지 않아 제약이 심한 비생산적인 접두사이다.

예) 건밀리다 *건올다 *건먹다

막 밀리다, 막 올다, 막 먹다

셋째, 기능면에서는 비분리성과 수식의 제한을 보인다.

예) 금마답 : *금 넓은 마답

예) 한집 : *한 대문 집

'금'과 '마답' 사이에 휴지(休止)를 둘 수 없다. 구 '한 집'인 경우는 '많은 집'의 의미로 '돈도 한 집이여', '돈도 한 삼춘 집이여' 등으로 내적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파생어 '한집'은 '본향신'을 높여 부르는 말로 하나의 집이나 크기가 큰 집이 아니어서 다른 구성 성분을 사이에 넣을 수 없다.

넷째, 의미면에서는 접두사는 실질 형태소가 의미 변화를 겪어 추상화된다.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접두사로 보기 어렵다.

예) 촌설

촌은 眞의 의미였으나, '강한' '질긴'의 의미로 쓰인다.

다섯째, 음절면에서는 단음절성이다. 그런데 이 요건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표준어에서 2음절 이상의 접두사로 제시된 것만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형사나 부사 가운데 단음절로 줄여 쓰는 경우가 있어, 점차 독립성을 잃어가고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사나 접두사로 처리되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방언의 경우도 단음절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예들이 많다. 강영봉이 제시한 133개의 접두사⁶³⁾ 가운데 22개가 2~3음절이다. '구석-'을 접두사로 볼 때 '구석마치'는 '접두사 + 접미사' 형태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 단어의 경우 '어휘화'한 것으로 본다면 '구석-'을 접두사로 처리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래-'를 접두사로 상정한 이유는 앞에서 밝혔다. 표준어의 '옛-'과 대응되는 접두사로는 제주 방언에서 '옛아'와 '옛-'이 있는데 '옛아'는 '옛-'과 연결 어미 '-아'가 만나서 하나의 접두사로 굳어진 경우이다. 그 밖에 '흐린-'의 경우도 '츠-'와 의미가 같은 접두사이다. 이처럼 제주 방언에서도 단음절성인 접두사가 우세하나 단음절의 규정을 반드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접두사 설정 기준으로는 '후속 어근'이 독립성이 있어야 하거나, 접미사와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강영봉(1995)이 추출한 제주 방언 접두사 133개 가운데 제주 서사 무가 어휘에 나타난 몇 개의

63) 강영봉(1995), "제주도 방언의 접두사", 「국문학보」 제13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6~21.

접두사를 통해 방언의 접두 파생어를 정리하고, 서사 무가에만 나타나는 접두사 몇 개를 추가한다. 이는 구송되는 과정에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낱말 의미를 한정하며 어휘적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의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2.5.2. 접두 파생 접사 의미

(1) 경-/격-/전-

'경-'은 주로 '밀다'라는 동사 앞에 붙어서 '세계' '몹시' '갑자기'의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로 이와 유사한 방언의 접두사로는 '겁-'이 있으며 표준어의 '검-'과 유사하다.

예) 경밀다

(2) ㄱ랑64)-

'ㄱ랑-'은 단음절이 아니어서 접두사에서 제외⁶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ㄱ랑'은 'ㄱ락'에서 접미사 '양'이 결합되어 'ㄱ랑' 가랑'으로 접두사화한 것으로 보인다.⁶⁶⁾ 가락→가랑은 일종의 동화 현상이다.⁶⁷⁾ 표준어에서는 '가랑'과 '가락'이 같이 나타난다. 방언의 'ㄱ랑비'는 머리카락처럼 산란한 모양처럼 내리는 비로서 '가느다란'의 의미로 방언의 'ㄱ랑정의', 'ㄱ랑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 ㄱ랑비

(3) 놀-

'놀-'은 본래 '생'의 의미로 '날고기'는 '생고기'로 의미의 변화가 없다. 중세 국어에서도 '놀룰 먹으면 예를 더오나니(능업85)'도 찾아 볼 수 있으며, 현대 국어에서도 '고기를 날것으로 먹었다'라 하여 쓰인다. 이 경우는 접두사가 아니라 어근이다. 그런데 '익히지 않은'의 의미로 통하지 않는 것이 제주 방언의 '놀냥' '놀흙'이다. 이 때의 '놀'은 '축축한, 마르지 않은'의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따라서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다.

예) 놀내

(4) 내-

'내-'는 동사 앞에 붙어서 '밖으로' '세게'의 뜻이거나 '힘있게' '힘주어' '계속'의 뜻을 나타낸다. '내-'는 합성어의 선행소로 쓰이는 경우도 물론 있으나 [표준어의 내건다] '내올리다'를 '앞으로 올리

64) 'ㄱ랑'은 명사 '고랑'과 다르다. 명사 '고랑'은 골(谷)+양(위치접미사)로 이루어진 파생 명사이다. 이때 골은 명사이다.

65) 서정미(1994), "현대 한국어 접두 파생어", 박사 학위 논문, 경기대, p.37.

66) 기주연(1991), "근대 국어의 파생어 연구", 박사 학위 논문, 한양대, p.65.

67) 이재성(1990), 전계서, p.20.

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경우는 의미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합성어의 선행 요소로 처리하지 말고 접두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 내후리다

(5) 똥-

'똥소로기'의 '똥-'은 '야생의' '질 낮은'의 의미로 접두사로 파악된다. 원래 뜻과 떨어져 있고, '똥강이'처럼 '춤강이'와 상대어로 쓰이는 접두사이다.

예) 똥소로기

(6) 개-

'개냥이'의 '개-'는 의미가 표준어 접두사 '개-'와 동일하다. 방언에서는 '개비늬' '개삼동'처럼 주로 식물 이름에 많이 쓰인다.

예) 개냥이

(7) 꺾-

'꺾버랭이'의 '꺾-'은 '팔'에서 온 듯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팔'과 거리가 먼 '작은'의 의미로 쓰였다.

예) '꺾버랭이, 꺾재열, 꺾감'

(8) 춤-

'춤'은 명사 '참(眞)'에서 온 말이며 독립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접두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⁶⁸⁾ 그러나 '춤'은 접두사 '똥'과 대립하여 쓰이는 것으로 '품질이 매우 좋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춤외'처럼 맛과 관련된다.⁶⁹⁾ '춤매(매의 일종)'도 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품종의 매를 가리킨다. 접두사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예) 춤쌀, 춤지름, 춤매, 춤대

(9) 매-/맨-

'매-'는 '순전하게 그것뿐'을 의미하고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주로 명사 앞에 붙어 의미를 나타낸다. 제주 방언의 동사 '피다(禿)'에서 어근이나 관형형이 접두사로 변화한 것이 '매-', '맨-'이다.

예) 매마끝, 맨브선

(10) 촛-

접두사 '촛-'는 '촛/촉' 등의 이형태로 나타나는데 표준어나 방언이나 실현되는 환경은 똑같다. 곡식 앞에 붙어 '끈기가 있는'의 뜻을 나타낸다.

예) 촛나록

68) 이홍식(1993), "현대 고유어 접두사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전남대 교육 대학원. p. 45.

69) 기주연(1991), 전게서. p.79.

(11) 치-

'치-'는 '위로 올림'의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로 알려져 있다. '치들다', '치밀다'의 예가 있는데 '힘 있게'의 뜻도 지닌다.

예) 신국신산 치돌아보난

(12) 도-

'도-'는 표준어의 '되-'와 유사하다. '다시' '반복'의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로 독립적인 의미로 쓰이지 못하며 동사에만 붙는 접두사이다.

예) 도올리며, 도느립서

(13) 엇-

'엇-'은 중세 국어에 보면 '엇므르다(顛倒裁)(譯解 下 6)'에서 보듯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또 다른 예로는 '몰거퇴 엇마그시니(馬外橫防)(龍飛御天歌44)'가 있는데 '서로 걸쳐서, 어긋나게, 서로 비껴서'의 뜻으로 이해된다. 접두사로 중세에는 동사 앞에 쓰였으나 제주 방언에서 이러한 '엇-'은 방향성과 순서성을 가진 동작 동사와 결합하기도 하고, 명사와 결합하여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예) 엇대답, 엇걸다

(14) 웨-

'웨-'는 표준어 '외-'에 대응하는 것으로 뒤따르는 어근이 매우 많다. 그러나 '외-'는 상당히 많은 어근과 결합하지만, 후속되는 모든 어근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접두사로 처리한다.

예) 웨딸, 웨지동, 웨송애, 웨돌칠귀, 웨집, 웨므슴

(15) 짓-

'짓-'은 '마구' '함부로'의 의미를 갖는다. 타동사와만 결합하여 목적어에 어떤 행위를 가하여 목적어의 상태 변화를 초래하는 의미를 더한다.

예) 짓몰다, 짓멕이다

(16) 다슴-

'다슴'은 중세 국어에서 '다슴'이란 명사로 쓰이던 것이다. 그러나 제주 방언에서는 '다슴어멍', '다슴애기'에서 나타나 이 접두사는 가족 관계 안에서만 사용한다, 후행 어근에 제약이 있는 접두사로 '繼'의 의미이다.

예) 다슴애기

(17) 한-

'한-'은 '하다'의 관형사형으로 굳어져 쓰이는 것으로 '많은' '큰'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사이다. 그런데 방언의 '한집'은 '큰집'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가 추상화 되어 본향신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예) 한집

(18) 수(首)-

'수장남'에 나타나는 '수-'는 '으뜸'의 뜻이다. 그 자체로 전혀 독립성이 없으며, '수장남, 수별감' 등 둘 이상의 어기에 실현되며, 한자어에만 결합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후행 요소가 명사에만 한정되어 있는 한자어 접두사이다.

예) 수장남, 수심방

(19) 금(金)-

'금-'은 '美'와 의미가 통한다. '꽃'은 '아름답다'의 뜻으로 접두사가 아니지만 '금'은 본래의 쇠붙이의 의미에서 '아름답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접두사로 처리하였다. '금'은 고유어와 한자어에 모두 붙는 접두사로 이광호가 선정한 102개의 한자어 접두사에는 속해 있지 않다.⁷⁰⁾ '금'은 일반적으로 '금비녀'의 '금(金)'처럼 이해되어 어근이나, 여기서는 의미가 추상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접두사에 넣었다.

예) 금동, 금마담, 금베리, 금바람, 금산

(20) 섭-

'섭-'은 방언에서 나타나는 접두사로 '바닥이 넓적하고 조금 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섭수까락'에서 발견되며 '섭돌'의 '섭-'도 '구멍이 있고 우둘투둘한 돌'이라는 뜻으로 접두사이다. 그러나 어근으로 쓰이는 '섭기'은 식물과 관련하여 '잎'의 의미로 쓰인다.

예) 섭돌

(21) 느단-

'느단'은 왼쪽의 의미를 지니는데 '느다'가 있고, '느단'이 있다. '느다'란 '왼쪽으로'란 뜻의 부사이고, '느단'은 용언의 관형형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접두사이다.

예) 느단귀

(22) 웬-

이때 '웬-'은 '왼쪽(左)'의 의미와 '낯선(他)'의 의미를 지닌다.

예)웬므실(他甲), 웬귀(左耳)

70) 이광호(1994), "한자어 접두사 문법 의미적 기능", 「문학과 언어」 15집, 문학과 언어 연구회. p.40.

71) '섭'은 '꽃'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23) 소(小)-

'소미(小巫)'에 나타나는 '소-'는 '능력이 뒤떨어짐'을 의미하는 접두사로 일반적으로 한자어 접두사로 인정하고 있다.

예) 소미(小巫)

(24) 아끈-

'아끈-'은 표준어 '아촌', 중세 국어 '아촌'에 대응되는 말로 '작다(小)'의 뜻이다. 명사 앞에서만 쓰이며 '작은'이라는 의미가 나타난다.

예) 아끈감이

(25) 왕(王)-

한자어 접두사로 '큰'의 의미를 갖는다.

예) 왕대, 왕재열

(26) 맞-

'맞-'은 동사 '맞다'와 부사 '마주' 등의 형태에서 그 모양을 찾아 볼 수 있으나, 그 뜻이 원래 의미와 차이가 있어 접두사로 처리하였다. 갈등 관계에 있는 동사와 결합하기도 하여 원래 의미와 멀어진 것처럼 보이며 비교적 생산성이 있다.

예) 맞상, 맞사다, 맞걸다, 맞앗다

여기에 더하여 서사 무가에만 나타나는 접두사가 있다.

박경신(1991:25)이 분석한 무가의 음보 분류표에 의하면 음보에서는 2음보가 압도적으로 구를 형성하고, 다시 음절 수에서는 4음절짜리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원래 한국어의 특질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서사 무가 어휘 중 몇 개의 단어 형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실례를 들어 보면 '지-, 신-, 제-, 저-, 연-, 서-' 등이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로 이 접두사들은 2음절의 단어를 3음절로, 3음절의 단어를 4음절로 만들어 청각 영상을 뚜렷하게 하고 음운론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27) 신(神)-

신풀저 : 풀다 : 신의 내력과 출생을 말로 풀어 내다

군웅 본산국을 신풀저 흡네다

난산국 신풀저 흐는다

신굴아 : 갈아서 : 신에게 바칠 쌀을 갈아서

시권제 신굴아 우올리며

신배 : 뺨

열두야 신배 양단 독지

신가시저 : 가시다 : 썼다

부정 서정 신가시저

신나수와 : 나게 하여

좋은 배슬도 신나수와

신젓줄 : 젓줄

신젓줄이 사왔고나

신수푼서 : 내려오십시오

신수푼 : 신이 내려와 모여

신수푼다 : 젓상을 옮겨다 놓아

기메기전 신수푼고 : 기메를 만들어 올리웁고

신수푼사저 : 신내려 서자고

신수푼는다 : 신내려 오는데

신벌엿수다 : 진설하였습니다

여기서 '신-'은 본래 '신(神)'의 의미인 어근이었으나, 단어의 안정성을 위해 첫머리에 자주 사용되면서 접두사화한 것으로, '신(神)'의 의미 이외에 2음절의 단어를 3음절로 늘려 구송하기 좋도록 만드는 구실도 한다. '신가슴, 신젓줄, 신줄다, 신나수다, 신푼다' 등의 어휘는 서사 무가 어휘에서 '신(神)-'이 없이 실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8)시-

시군문 : 군문 : 신이 하강하여 오는 곳의 문

머연 정 시군문으로

시권제삼문 : 권제삼문 : 중이 촌가를 돌아 다니며 부처께 바치기 위하여 빌어가는 齋米

시권제삼문 받으레 느려 샅읍네다

시권제 받으레 느려사

시결명 : 결명 : 잡귀신을 대접하기 위해 제 지낸 후 제반을 걷어다 던지는 일

알제반도 걷어다 시결명 무어

시군줄덜 : 군줄들

낭계일몽 불러주던 시군줄덜

시걸어보니 : 걸어 보다

한새백베기 시걸어보니

여기서 '시-'는 '신(神)-'의 이형태로 본래 '신(神)-'에서 왔으나 발음의 편리상 '니'이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29) 지(紙)-

지올려 : 올리다

대천국을 지올려

지냉겨 : 넘기다

작별잔을 지냉기자

지날루자 : 나누다

작별잔을 지날루자

지사비자 : 사비다 : 사귀다

세벤 군줄 지사비자

지부찌고 : 붙이다

지부찌며

지부찹서

지부찌자

지달래명 : 달래다

느진덕 정하님 지달래명

지달래고 : 달래고

지올려 : 올려 보내어

서천꽃밭 지올려

지돋호화 : 돋구어

지돋호고

상촉권상을 지돋호화

지늦추니 : 낮추니

여기서 '지(紙)-' 본래 '지밭제호고'에서 나타나는 '지(紙)'라는 어근에서 온 접두사로 보인다. 무속 제의에서 '종이'의 구실은 매우 큰 것으로 제차(祭次) 가운데 '돌래지, 기메진지, 지바침'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어근 '지(紙)'가 자주 쓰이면서 다른 단어에 따라 붙어 접두사화하여 본래 2·3음절이 단어를 3·4음절로 만들어 안정감을 심어 주고 있다.

(30) 연(連)-, 연(淵)-

연필 : 길

삼시왕에서 초공 연필로

연드레 : 다래

연드레도 먹구저라

연줄

연봇대

좁이 7득 연봇대를 심고

연서답 : 서답

대구덕 연서답 답아야전

연찰물

연드리 : 다리

서천강 연드리도 느레가자

여기서 '연-'은 한자어 '연(連)' 또는 '연(淵)'에서 온 접두사로 '계속', '연못'의 의미가 약화되었으나, 단어에 뜻을 더해 주며, 음절을 부드럽게 발음하도록 하여 어감상 매끄러움을 더한다. 역시 1·2음절 단어를 2·3음절로 만들어 주고 있다. 제차(祭次)와 관련된 단어는 '연(連)-'으로, '연못'이나 '강물'과 관련된 단어는 '연(淵)-'으로 그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

(31) 제(祭)-

제이르다 : 말하다

제일름긴 : 제이르웁기는

제맞인 : 맞이다

제맞인 날 받아놓고

조은 날 조은 시 제맞인 날 받았수다.

여기서 '제'는 한자어 '제(祭)'에서 온 접두사이다. 위에서 설명한 다른 한자어 접두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서-

가난하고 서난호여⁷²⁾

서정신

부정신 서정신

서붓

좁이 ㄱ득 서붓

여기서 '서-'의 경우는 해당하는 한자어를 찾지 못하였다. 청자들은 '가난하고 서난호여'를 청취하는 순간 '서난호여'의 의미 해석에 매달리지 않고, '가난호여'에서 이미 그 의미를 결정하고 '서난호여'의 '서-'는 직관적으로 형식적이고 허사적인 성질을 지닌 접두사로 이해한다. 즉 '서-'는 어근의 일부를 변형 시켜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서난호다, 부정신), 단어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냥 앞에 붙기도 하여(서붓) 단어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신(神)-/시-, 지(紙)-, 연(連)(淵)-, 제(祭)-'는 한자어에서 온 접두사로 서사 무가 어휘에서 주로 나타나며, '서-'는 해당하는 한자어를 찾지 못하였으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 이러한 접두사들은 서사 무가의 특성상 행위나 제차(祭次)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접두사이며, 무속 어휘가 입말로 구연되는 특성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접두사를 의미별로 분류하면

(1) 대소를 나타내는 것 : ㄱ랑-, ㅍ-, 한-, 아끈-, 소-, 왕- (명사파생)

(2) 성질을 나타내는 것 : 놀-, 섭- (명사파생)

(3) 가치를 나타내는 것 : 똥-, 개-, 금-, 수-, 춤- (명사파생)

(4)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 : 치- 짓-, 내-, 경- (동사파생)

(5) 농도를 나타내는 것 : 츠- (명사파생) 매- (명사파생)

(6) 대립, 독립, 반복을 나타내는 것 : 맞- (이중파생), 엇-(이중파생), 웨-(명사파생)

도- (동사파생)

(7) 방향을 나타내는 것 : ㄴ단-, 웬- (명사파생)

(8) 가족을 나타내는 것 : 다슴- (명사 파생)⁷³⁾

(9) 서사 무가 어휘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 : 신-, 시-, 지-, 연-, 제-, 서-

72) 현용준(1980), 전게서, p.192. '서난호고'를 '가난호고'에서 온 조운구라 하였다.

73) 방언에서는 가족 안에서 쓰이는 접두사로 '가쇠-', '넛-' 등이 있다.

2.5.3. 접미사 설정 기준

국어는 굴절어와 고립어와 달리 접미사가 풍부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접사에 따른 파생법의 하나인 접미 파생법은 어근이나 어간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접미 파생은 앞에서 서술한 접두 파생과 더불어 대표적인 외적 파생에 속하는 것이다.

접미사는 단어의 구성 성분을 분석해 보면 어기의 뒤에 붙는 접사로 여기에 뜻을 더할 뿐 아니라 어기의 문법적 성질을 바꾸는 기능을 가지는 형태소이다. 굴절 접미사와 파생접미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파생 접미사만을 다룬다. 파생 접미사는 IC분석 과정에서 다른 구성 성분과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다. 특히 의존 명사는 자립성이 부족해서 접미사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생 접미사는 의미 분화를 나타내는 경향이 높고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특성을 갖고 있어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

파생 접미사를 설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면에서 통사 범주의 변화를 일으킨다.

예) -기 : 모로기 (동사 어기에 명사 파생)

-이 : 늦이 (형용사 어기에 부사 파생)

-영 : 고영, 하영 (형용사 어기에 부사 파생)

-수- : 나수다 (주동에서 사동으로 통사 기능의 변화를 가져 온다.)

둘째, 분포면에서 제약을 갖는다.

다음에서 보듯이 굴절 접사는 빈칸이 없으나 파생 접사는 빈칸이 많다.

접사 어기	파생 접사			굴절 접사		
	-이	-음	-기	암서/업서	-앗/-엇	-압시-/-업시-
듣다	×	○	×	○	○	○
풀다	○	×	×	○	○	○
좁다	○	×	×	○	○	○
칩다	×	×	○	○	○	○

'풀다'와 '좁다'는 '-이'와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하고 '-음', '-기'와는 결합되지 않으며, '듣다'는 '-음'과 결합하고, '칩다'는 '-기'와 결합한다.

예) 물좁이, 품풀이, 진들음, 방안 칩기

셋째, 의미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더하여 어휘적 의미를 첨가하거나 의미의 제약이 따른다.

ㄱ. -뜨 - : 누르뜨다, -싸 - : 베르싸다 (강세)

ㄴ. -영- : 거멍흐다, 허영흐다, 누렁흐다, 벌경흐다, 퍼렁흐다

(색채를 나타내는 선행 요소에 결합하여 색채 기능을 나타낸다)

2.5.4. 접미 파생어 유형

1. 명사 파생 접미사

명사 파생 접미사에서 파생 명사 어기는 매우 다양하고 파생 접미사 형태도 그 이형태까지 포함한다면 매우 많다. 제주 방언에는 접미사가 이중으로 결합한 형태가 있어, 이를 이중 파생으로 보기도 하나, 여기서는 이형태로 보아 모두 단일 파생 접사로 다룬다. 만약 개별로 파악하게 된다면 그 수가 엄청나고 지역에 따라 발음이 다른 경우도 있어 파생 접사의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명사 파생어를 형성하는 접미사와 결합하는 어기로는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불완전 어기가 있다. 그 어기별 파생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명사 어기 + 접미사

-거리 : 둥이거리

-걸리 : 청걸리, 흑걸리

-치기 : 뒤치기

-데기 : 뺨데기

-싸리 : 입싸리

-이/-앵이/-ㅇ이/-앙이 : 존둥이, 가쟁이, 모지리, 버랭이, 생이, 즈깁이

-청/-나청 : 궁예청, 업계나청, 제비청

-통이 : 마통이

-바치/-와치/-바시 : 풍노와치, 풍류와치, 걸바시, 게와시

-장이/-쟁이/-쟁이 : 돌챙이, 짐쟁이, 철쟁이

-지기 : 섬지기, 되지기, 말지기

-잡이 : 상대잡이, 중대잡이, 하대잡이

-님 : 영계님

-군 : 상군, 하군



-생이 : 백강생이, 과양생이, 몽생이

'-생이'는 어떤 말 아래 붙어서 작은 것을 의미하나 '과양생이'는 인명으로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아리/-어리 : 트가리

-아지/-어지/-야지/-으마지/-암지 : 목아지, 목으마지, 귀야지

-바되/-바데 : 닛바되, 닛바데

-따시 : 풀따시

-으랭이 : 즈드랭이

-뎡이 : 바농⁷⁴⁾뎡이, 몸뎡이, 등뎡이

-치 : 갈치

-옴 : 소곱

-영/-양 : 트멍, 고망, 고장

-태기 : 오곱태기, 즈곱태기

-명/-망 : 어멍, 아지망

-방 : 아방, 오라방, 하르방

-셀 : 몸셀

-다리 : 흘목다리

-방맹이 : 꺾방맹이

-망둥이 : 볼망둥이, 눈망둥이

-짱 : 노념짱, 꼬리감음짱, 품짱, 침짱

이 예들은 어기의 의미를 제한할 뿐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다. 이들 중 '-이'는 표준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파생 분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신체부위⁷⁵⁾와 관련하여 상황적인 비칭을 의미하는 접미사가 많다는 점도 알 수 있다.

(2) 동사 어기 + 접미사

-게/-개 : 업게(업다), 귀오개(귀오비다), 놀개(놀다), 지게(지다)

-애 : ㄹ새(꺾다), 가매(감다)

-거리 : 자시거리 (자시다)

74) '-옹'을 체언 뒤에 붙는 접사로 처리하는 견해가 있다. '마농'과 '사농'의 '-옹'을 어기와 분리하여 '반, 만, 산'을 재구하여 'ㄴ말음'인 경우 '옹'과 결합하여 명사 파생 접미사로 보기도 한다.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파생 접미사 - 몇 개의 재구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집,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p.368.

75) 최규일(1983), "인체어휘고", 국어국문학 87호, 국어국문학회.

- 기 : 모로기 (모로다) 울러르기(울러르다) ㄹ리치기(ㄹ리치다) , 칩기(칩다)
- (으)다 : 노님(노녀다), 젓멕임(젓멕이다), 멕임(멕이다), 삼삼음(삼삼다), 꼬리감음(꼬리감다)
 석살림(석살리다), 헤말림(헤말리다),
- 베기 : 앓인베기 (앗다)
- 이 : 물줍이 (물줍다), 놀이(놀다) 맥이(막다) 품풀이(품팔다), 감이(감다)
- 락 : 곱을락(곱다), 굴길락(굴기다)
- 우리 : 마구리(막다)
- 님 : 나님(나다), 드님(들다)
- (3) 부사 어기 + 접미사
- 짱 : 마니짱⁷⁶⁾
- (4) 형용사어기 + 접미사
- 애/-에 : 지레(질다) ① 길어 :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의 거리
 ② 신장(키)
- 다리 : 늑다리(늑다)
- (5) 불완전 어기 + 접미사
- 이 : 반등갱이

2. 동사 파생 접미사

(1) 동사 어기 + 접미사

- 오-/-우- : 깨우다, 발루우다, 새나우다, 뽕피우다, 그늘우다, 걸루다
- 호-/-후- : 돌호다

생산적인 접미사 '-오-/-우-'는 '-호-/-후-'의 변이 형태도 지니고 있다.

- 수- : 나수다, 깨수다

방언에서는 '-수-'의 형태도 나타난다.

- 이- : ㄹ득이다, 멕이다, 늑이다, 머치다

사동 접미사 '-이-'는 '-오-/-우-'와 함께 가장 생산적이다. '머치다'는 중세 국어 '만지다', 또는 '말트다'에서 온 단어이다.

- 지- : 킴지다, 앓지다, 부찌다, 잼지다

'-지-'는 표준어의 '-이-', '-히-', '-기-' 등에 대응되는 사동 접사로 제주 방언에서 나타난다.

76) '마니'는 머리를 좌우로 터는 모습을 의미하는 부사이다.

-기- : 땀기다

말음이 ㅇ인 경우 '-기-'가 쓰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이우- : 들리우다

-뜨- : 누르뜨다

-치- : 흥글치다, 모도치다

'-뜨-'와 '-치-'는 강세의 의미를 더한다.

-이- : 백이다, -이- : 배이다

가장 생산적인 피동접사이다. 어간 말이 모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히- : 맥히다

-리- : 열리다, 울리다

'-리-'는 동사의 어간 말이 ㄹ아래에 첨가되어 쓰이는 음운론적인 제약이 있다.

-아지-/-어지- : 중가지다, 열아지다, 솟아지다, 알아지다, 벌러지다, 좇아지다

(2) 형용사 어기 + 접미사

-추- : 늦추다

-히- : 굶히다

'-이-'에 비해 '-히-'는 비생산적이다.

-치- : 그르치다

-어지-/-아지- : 아파지다, 몰라지다(乾)

(3) 부사 어기 + 접미사

-호- : 곱상호다, 속곡호다, 찻따호다, 굵억호다, 실그락호다, 굴강호다

제주 방언에서도 '-호-'가 결합하여 많은 단어를 파생시킨다.

-지- : 수망지다

3. 형용사 파생 접미사

(1) 동사 어기 + 접미사

-압- : 졸압다

(2) 형용사 어기 + 접미사

-압- : 느잡다

-압-/-업-은 동작 동사의 어기에만 붙었으나, 형용사에도 붙어 파생시키고 있다.

-엉-/-앙- : 거멍호다, 허영호다, 누렁호다, 벌겍호다

-이릉-/~으릉- : 누리릉하다, 검으릉하다, 프리릉하다

형용사 어간에 접미사 '-엉-/~앙-/~으릉-/~이릉-'이 붙어 파생 어기를 형성한 후 다시 '하다'가 결합하여 형용사를 2차로 파생시킨다.

(3) 부사 어기 + 접미사

-ㅎ- : 흘락하다

매우 생산적인 파생의 방법으로 '의성어·의태어·첩어'와 같은 부사성 어근이 '하다'와 결합한다. '하다'의 선행 요소는 자립성은 없으나 보조사도 넣을 수 있다.

4. 부사 파생 접미사

(1) 명사 어기 + 접미사

-이 : 습습 + 이 → 습습이

공(穹) - 이 → 공이

(2) 동사 어기 + 접미사

-억/-악/-락 : 신나락, 오그럭, 폐왁

-우-/~후- : 헐다 → 허우

동사 어간이나 형용사 어간에 두루 붙는 접미사로 중세 국어에서는 생산성이 매우 높다.

(3) 형용사 어기 + 접미사

-이 : 낮 + 이 → 낮이 (낮다)

긷 + 이 → 긷이 (긷다)

노프 + 이 → 노피 (노프다)

흘락 + 이 → 흘라기/흘레기⁷⁷⁾ (흘락하다)

-영 : 곱 + 영 → 고평 (곱다)

하 + 영 → 하영 (하다)

-곰/-곰 : 흑 + 곰 → 흑곰 (흑다)

새 + 곰 → 새곰 (시다)

-악 : 무르 + 악 → 몰락 (무르다)

-신 : 족 + 신 → 족신 (족족하다)

-직 : 펜 + 직 → 펜직 (펜펜하다)

77) 흘다(헐다)형용사 → 흘 + 악(접미사) → 흘락(부사)

흘락 + ㅎ → 흘락하다(형용사) → 흘락 + 이(접미사) → 흘레기(부사)

헐다 : (老)는 늘거 니즘 허울씨라<능-5> : 헐(減)하다(동사) : 흘락흘락 (반복부사)

-잇 : 꺾르 + 잇 → 꺾릿 (꺾르다)

(4) 부사 어기 + 접미사

-곰 : 잘곰 (잘)

-딱 : 문딱 (문)

(5) 불완전 어기 + 접미사

-이/-기 : 줌지롱 + 이 → 줌지롱이, 흘그산 + 이 → 흘그산이, 와들랑 + 이 → 와들랑이
오돌랑 - 이 → 오돌랑이, 힐꾸름 + 이 → 힐꾸름이, 덩글랑 + 이 → 덩글랑이
우두켁 + 이 → 우두켁이, 베롱 + 이 → 베롱이, 덩돌막 + 이 → 덩돌막이
술그랑 + 이 → 술그랭이, 기리에 + 기 → 기리에기, 헤뜰랙 + 기 → 헤뜰랙기
몬뜰랙 + 기 → 몬뜰랙기, 몬들랙 + 기 → 몬들랙기, 브스속 + 기 → 브스속기
소룩 + 기 → 소룩기

2.5.5. 접미 파생 접사 의미

1. 명사 파생 접미사

1) 인칭 접미사⁷⁸⁾ : 존칭의 경우 '-님'을 제외하고는 습관적 행동,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을 알 잡아 나타낸다.

(1) -내칭/ -나칭/-칭

사람의 한 무리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예) 업게나칭, 업계내칭, 제비칭, 아기나칭, 궁예칭,

여기서 '업게나칭'은 무려 세 개의 접사가 결합된 특이한 단어이다. '애기업게 말도 귀 넘어 듣지 말라'의 경우처럼 '업게'로도 실현되며 '업게나칭'은 복수의 의미를 가진다.

(2) -통이/-동이

'-통이'는 '-동이', '-동이'로 나타나며, 한자 '童'에 '-이'가 결합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예) 마통이 : 마를 캐어 파는 사람

'천년동이(천리동이), 만년동이(만리동이)'인 경우는 '개'의 이름으로 힘의 소유 정도를 나타내어 인격화 시켜 표현하였다.

78) 송상조(1991)는 인칭 파생 접미사를 45개로 제시하였으나, 여기서는 서사 무가에 나타난 12개만 설명하였다.

(3) -바치/-와치/-바시

'-바치'는 어떤 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낮추어 말한다.

예) 풍노와치, 풍류와치, 걸바시, 게와시

중세 국어에서는 '工匠曰 把指, 農曰 宰把指(계림유사)'에서 보듯이 원래 명사였던 것이 중세 국어 이래로 접미사화하여 쓰이고 있다.

(4) -쟁이

예) 돌ㅎ + 쟁이 : 돌쟁이, 점쟁이, 철쟁이

'-쟁이, -장이'는 '匠 + -이'가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의 직업, 성질, 습관 또는 행동과 품성이 지나친 사람도 나타내는데 여기서 '돌쟁이'는 '돌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5) -지기

'-직이'는 한자어 '直 + -이'가 통합된 접미사로 제주 무속 어휘에서는 '무엇을 지키는 신'의 의미로 쓰인다.

예) 섬지기, 말지기, 되지기, 흙지기, 배지기

특이한 것은 대체로 표준어에서는 장소와 관련된 어근에 붙어 쓰이나 제주 무속 어휘에서는 고팡에 좌정하여 '쌀에 붙어 쌀을 지키는 신'의 뜻으로 주로 어근이 '쌀'을 계량하는 단위인 경우가 많다.

(6) -님

존칭의 의미로 명사와 동사에 모두 쓰인다.

예) 영계님 : 영계(영혼) + -님

나님, 드님 : 나(出)다 + -님, 들(人)다 + -님

'-님'은 인간이나 유칭적 자연 대상물에 붙어 [+exalted]의 파생어를 형성시킨다. 특이한 것은 모두 명사 뒤에 붙어 명사를 파생시킨다는 점이다. 이 '님' 역시 중세에는 명사로 쓰였던 단어이다.

(7) -군

'-군'은 주로 동작성의 명사에 붙어 '어떤 일을 잘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해녀들을 일을 잘 하는 정도에 따라 상군, 하군으로 나누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예) 상군, 하군

(8) -이

'모지리'는 모진 사람의 뜻으로 '모질다'라는 형용사에서 온 말이다. 특수한 행동에서 기인된 유정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 모지리, 췌처리

(9) -계

'업계'는 '업다'에서 온 말로 '업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예) 업계

(10) -잡이

'-잡이'는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의 의미와 함께 '행위, ~하는 물건, ~하는 삶'의 기능을 내포하는 어휘로 재생산된다.

예) 상대잡이, 중대잡이

(11) -방/-망

제주 방언에서 나타나는 인칭 접미사이다.

예) 아방, 할망

(12) -베기

'-베기'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준어 '얇은뱅이'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예) 얇은베기

2) 사물 접미사

(1) -생이

동물의 새끼나 작은 동물을 가리킨다.

예) 백강생이, 몽생이

(2) -앵이/-양이/-오이

예) 버앵이, 토쟁이, 풀앵이, 즈깁이, 생이

어근 자체로도 그 뜻을 지니나 여기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쓰인다. 특별히 더하는 의미는 없다.

(3) -개/-계(-애/-예), -거리

'-개' 앞에 오는 어근은 도구를 필요로 하는 행위나 일을 나타내는 동사로 한정된다.

예) 귀오개, 지계, ㄱ새, 자시거리



(4) -아리/-어리, -아지/-어지, -바디/-바데, -싸리, -따시, -으랭이, -땡이, -걸리, -데기, -치,
-태기, -망둥이, -방맹이

예) 툇가리, 목아지, 닛바디, 입싸리, 풀따시, 즈드랭이, 몸땡이, 칭걸리, 뽕데기, 갈치, 오곰태기,
불망둥이, 컷방맹이

이들은 엄밀히 말하여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신체 접미사이나 편의상 여기서는 사물 접미사에 넣었다. 주로 비칭적 의미를 지니는 접미사들이다.

3) 상태 접미사

(1) -에

느낌, 모양, 태도, 정도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다음의 예가 있다.

예) 지레 : 키

(2) -읍

예) 소굽

4) 행위 접미사

(1) -짱 예) 뇌죽임짱

(2) -썰 예) 몸썰

(3) -락 예) 굴길락

(4) -이 예) 맥이, 품풀이

행위나 일을 과생시키는 접미사이다.

'-짱/-썰'은 특이한 접미사로 '-썰'과 더불어 모두 동작성의 경우에 나타난다. 또한 특이한 것은 반드시 명사뒤에 붙거나 동사인 경우 명사로 과생된 뒤 붙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짱'은 동작성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동작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미사임을 알 수 있다. 표준어에서 '-질'은 '그 것을 쓰거나 하는 짓' 또는 '그 행위나 일을 얹어서 나쁘게 말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이에 대응되는 제주 방언 접사로는 '-썰'이 있다.

5) 위치 접미사

(1) -영/ -앙

예) 트멍, 고망, 고랑

(2) -싸리

예) 입싸리

(3) -치기

예) 뒤치기

2. 동사 파생 접미사

-오-/-우-, -호-/-후-, -수-, -이-, -지-, -기-, -이우-, -리-, -추-, -히-, -이-, -히-, -아지
-/-어지-, -뜨-, -치-, -흔-, -지-

3. 형용사 파생 접미사

-압-, -앙-/-엉-, -이릉-/-으릉-

4. 부사 파생 접미사

-이-/-기, -우-/-후, -악-/-억-/-락, -옥, -곰, -잇, -직, -신, -영, -딱

위에서 열거한 여러 파생 접미사 중 생산성이 높은 파생 접미사 '-이-/-으(口)'에 대하여 그 의미 기능을 좀더 논의한다면 다음과 같다.

명사 파생 접미사는 동사군, 형용사군, 명사군, 불완전 어기군으로 나눌 수 있다.

(1) -이

① 동사군은 자동사나 타동사의 단일어 형태소 어간에 '-이'가 붙어 동작성을 의미하는 파생어를 형성시킨다.

예) 놀이 : 자동사 '놀다'에서 '놀이'로 변하면서 동작성 동사가 구체적인 놀이의 방법을 지시하는 명사형 어휘로 전성되는데 표준어의 '공놀이', '옷놀이'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노님놀이', '놀음놀이'인 경우는 구체적인 놀이의 방법을 지시한다기보다 자동사 '놀다', '노녀다'에 '-口'과 '-이'가 붙어 '노는 일' 그 자체를 의미한다. '노님놀이'는 이 두 단어가 서로 결합하여 합성어를 형성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예) 품팔이 : '품을 풀다'라는 '목적어 + 서술어' 형식이 축소된 모양으로 볼 수 있다. '품팔이'인 경우는 '품을 파는 일'이 되지만, 표준어 '검팔이'는 '검 파는 사람'이 되어 '~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가진다.

예) 짚이 : 타동사 '잡다'에 '-이'가 접미되면서 만들어진 '-잡이'인 경우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의 의미를 지닐 때는 '-잡이' 자체가 하나의 파생 접미사로 처리되었고, 표준어에서 '동물을 잡는 행위'를 의미할 때는 '-이'를 접미사로 처리한다.

예) 멍석(으로) 걸다 : 형벌의 한 가지, 옷(을) 걸다 : 옷 거는 도구

'걸이'인 경우는 '멍석걸이'처럼 방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옷걸이'처럼 대상을 의미하는 경

우도 있다.

예) 물줄이 : 표준어 '말이'에 해당하는 이 어휘는 '(밥에) 물을 줌다'라는 통사 구조를 상징하고 여기서 '물줄이'가 나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는 '~하는 행위, ~하는 물건, ~하는 사람'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갖는 어휘로 재생산되고 있다.

② 형용사군은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예) 모지리 : '모질다'에서 '~한 사람'의 의미를 지니며 특수한 행동에서 기인된 긍정성 [+human]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질다'에서 파생된 '지레'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상성의 의미 자질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③ 명사군은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중세 국어를 대상으로 명사 파생 접미사에 대해 살펴 보면 이미 중세어 자료에 '풀'→'포리', '굼병'→'굼병이', '곤'→'고니', 고슴돌→'고슴도치' 등의 어원 자료에 의해 새 어휘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방언에서는 명사형을 파생시키는 '-이'접사는 [-양이, -앵이, -오이] 등으로 변이되어 새로운 어휘를 형성한다.

예) 버랭이, 토갱이, 꿀랭이, 즈깁이, 즈드랭이, 존둥이, 뇌눈이, 췌처리, 생이

④ 파생력이 높은 불완전 어기에 '-이'가 붙으면 모두 부사로 파생된다.

방언에서 부사를 파생시키는 '-이'의 경우는 앞 단어 받침이 'ㄱ'으로 끝난 경우는 '-기'로 나타나며 생산성이 뛰어나다. 그 밖에도 형용사, 명사, 부사 뒤에 붙어 부사를 파생시키고 있다.

예) 줌지롱이, 흘그산이, 해뜰랙기, 오돌랑이

(2) -(으)ㅁ

① 구성성 : '을다'에서 '으름'을, '줍다'에서 '줍음'을 파생시키는 예가 있는데 그런 상태의 어떤 구상적인 형태를 취하는 물건으로 바뀐다. 이런 경우는 중세 국어 이후로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예로 어떤 대상을 낳게 한다는 특징을 지니며 다른 어근과 결합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동작성 '-ㅁ'과 구별된다.

② 동작성 : 노념(노녀다), 움(울다), 띄와뽀(띄와뽀다), 젃멕임(젃멕이다), 멕임(멕이다), 삼삼음(삼삼다), 꼬리감음(꼬리감다), 석살림(석살리다), 헤말림(헤말리다), 놀음(놀다), 남(나다)

행위나 사건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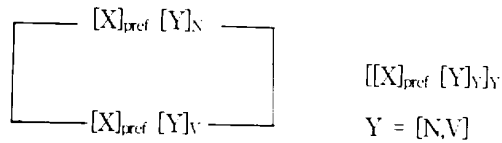
③ 태도나 느낌 : 흘림

이는 '홀리다'에서 '-ㅁ'이 붙어 파생된 단어로 표준어에서는 '홀리다', '유혹하다'로 쓰이고 있다. 뜻은 '매력으로 남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빼앗다'이다. '-ㅁ'이 붙어 생긴 '홀림'은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2.5.6. 접두·접미 파생어 형성 규칙

접두사가 명사 앞에 붙어 명사를 파생시키는 경우가 있고, 동사 앞에 붙어 동사를 파생시키는 경우가 있고, 명사와 동사 앞에 두루 붙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접두사는 명사를 파생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방언에서의 접두 파생은 접두사가 133개로 조사된 바도 있으나, 접미 파생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그 예가 다양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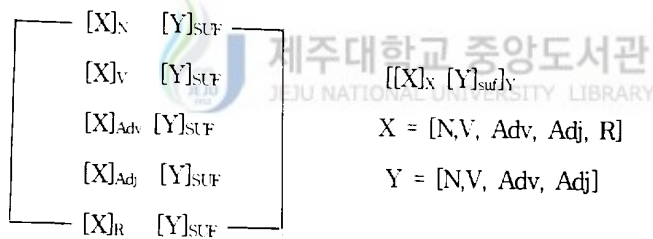
이러한 접두 파생어 형성 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refix : 접두사

(명사나 동사 앞에 접두사가 붙어 명사나 동사에 의미를 더한다)

접미 파생어 형성 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uffix : 접미사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불완전 어기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품사를 바꾸거나, 의미를 더한다)

접미사는 여러 어근이나 어간에 붙어서 많은 접미 파생어를 형성해 내는데 이 규칙으로는 파생의 다양한 용례를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다양한 음운의 탈락, 첨가, 어근의 변형을 이 규칙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2.5.7. 영변화 파생법

영변화 파생은 여러 용어로 불리었는데, ‘품사 전성’, ‘영접사 파생’, ‘영변화 파생’이라 한다. ‘품사 전성’의 개념은 품사론의 관점이고, ‘Zero-derivation’은 영 형태의 접사를 설정한다는 견해이며, ‘Zero-modification’은 접사의 첨가가 없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다는 개념이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영변화 파생은 단어에 형태 변화가 없이 품사가 바뀌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파생 되기 전이나 파생 후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품사가 중심 어기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송상조(1991)는 제주 방언에서 영변화 파생 어휘 목록을 모두 65개로 제시했는데 명사와 동사 사이가 46개, 동사와 부사 사이가 19개이다. 이러한 영변화 파생을 제주 서사 무가의 어휘 속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1) ① 쿨- 쿨다(품다)
 - ② 녹명굴리 - 녹명굴리다 : 분별하다
 - ③ 뒤 - 뒤다
 - ④ 뽐 - 뽐다
 - ⑤ 매기 - 매기다
 - ⑥ 발 - 발다
 - ⑦ ㄹ득 - ㄹ득다
 - ⑧ 막 - 막다
- (2) ① 내리다 : 내리
 - ② 낮추다 : 낮추
 - ③ 모도다 : 모도



위의 예 (1)의 경우는 명사와 동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2)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예다.

이처럼 파생 전·후의 어기를 확실히 구분할 수 없으나, 송철의(1988)는 형태상 동일하고, 의미상 관련이 있으며, 통사 범주가 다르면 그 두 어휘항은 영변화 파생 관계로 처리하고 있다.

2.5.8. 내적 변화 파생법

내적 변화 파생법은 모음·자음이 교체하여 그 형태나 의미의 차이를 가져 오는 파생법으로 파생의 범주에 속하며 영변화 파생법과 함께 접사에 따르지 않은 파생법에 속한다.

그런데 영변화 파생법은 통사 범주를 바꾸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내적 변화 파생법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두 파생법은 같은 파생의 범주이나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종래에는 음성 상징으로 논의되어 오던 내적 변화 파생어는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파생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내적 변화에 따른 파생은 자음이나 모음이 교체됨으로써 형태나 의미의 차이를 가져와 각각 새로운 단어로 인정되는 경우로 주로 음성 상징어에 많이 나타난다. 내적 변화에 따른 파생어인 경우 기본적으로 어기를 정해야 파생된 단어를 추출할 수 있는데 주로 국어의 자음은 평음에서 경음, 경음에서 유기음 [격음]으로 파생된 것으로 보고, 모음은 양성 모음에서 음성 모음으로 파생된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어감상(語感上)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다.

(1) 자음 교체법

ㄱ:ㅋ 돌곰돌곰 : 돌콧돌콧, 새곰새곰 : 새콧새콧, 시금시금 : 시킴시킴

ㄷ:ㅌ 선득선득 : 선뚝선뚝, 돌돌 : 딸딸

ㄷ:ㅌ 돈돈 : 툃툃

ㅂ:ㅃ 뱃드득 : 뺨드득

ㅂ:ㅃ 뺨뺨 : 뺨뺨

ㅇ:ㅇ 외랑외랑 : 과랑과랑, 물랑물랑 : 물락물락

(2) 모음 교체법

ㅏ:ㅑ 나착 : 느착

ㅓ:ㅕ 문작문작 : 문작문작, 푼릿푼릿 : 누릿누릿, 느릿느릿 : 누릿누릿

ㅓ:ㅕ 간들간들 : 건들건들, 나을나을 : 너을너을

산득산득 : 선득선득, 들막들막 : 들먹들먹

들씩들씩 : 들씩들씩, 물랑물랑 : 물렁물렁

ㅓ:ㅕ 수박수박 : 수북수북

ㅓ:ㅕ 동글락 : 둥글락, 모지리다 : 무지리다⁷⁹⁾

ㅓ:ㅕ 오들랑 : 와들랑

79) 중세국어 '무되다', '무지다'와 관계가 있다.

3. 결 론

지금까지 제주 서사 무가 어휘를 중심으로 제주 방언의 어휘 형성 양상과 원리를 살펴 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 (1) 이 논문의 분석 어휘는 제주 서사 무가 본풀이 속의 어휘를 대상으로 삼았다.
- (2) 합성어와 구의 구별 기준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 ① 구성 성분의 내적 확장 유무이다.
 - ② 구성 성분의 배열 순서에는 제약이 따른다.
 - ③ 수식 관계에서는 합성어와 구가 차이가 있다.
 - ④ 합성어 형성시에는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
 - ⑤ 합성어의 구성 성분 일부가 음소의 변화를 일으킨다.
 - ⑥ 합성어의 선·후행 성분이 통사적 구성 성분과 같다고 하더라도 문법적으로 그 기능을 달리하는 것이 있다.
- (3) 합성어 결합시에는 일정한 배열 순서가 있다.
 - ① 시간 표현에서는 시간상 앞선 단어가 먼저 나타난다. 예) 이똥
 - ② 공간 표현에서는 앞이나 위 공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먼저 나타난다. 예) 우알
 - ③ 이해특질면에서는 화자에게 득이 되는 말이 먼저 나타난다. 예) 들곰날곰
 - ④ 원근(遠近)면에서는 화자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단어가 먼저 나타나난다. 예) 이레저레
- (4) 합성어 형성 규칙은 다음과 같다.

<명사 경우>

규칙(1) $[X]_N, [Y]_N \rightarrow [[X]_N [Y]_N]_N$ 예) 이새끼

규칙(2) $[X]_N, [Y]_N \rightarrow [[X]_{NR} \text{ ㄴ/ㅎ/Ø}_{DET} [Y]_N]_N$ 예) 웃지방, 질칸나이, 예시잠

규칙(3) $[X]_{Adv}, [Y]_N \rightarrow [[X]_{Adv} \text{ ㄴ/ㄹ/Ø}_{DET} [Y]_N]$ 예) 든메, 디덜팡, 족새

<동사 경우>

규칙(1) $[X]_V, [Y]_V \rightarrow [[X]_V \text{ -어/-고-}_{Adv} [Y]_V]_V$ 예) 모다들다, 가고보다

규칙(2) $[X]_N, [Y]_V \rightarrow [[X]_N [Y]_V]_V$ 예) 거넘흐다, 그릇내다

규칙(3) $[X]_{Adv}, [Y]_V \rightarrow [[X]_{Adv} [Y]_V]_V$ 예) 허우뜬다

<부사 경우>

규칙(1) [X]_N, [Y]_N : [[X]_N [Y]_N]_{Adv} 예) 방울방울, 궁기궁기

규칙(2) [X]_{Adv}, [Y]_{Adv} : [[X]_{Adv} [Y]_{Adv}]_{Adv} 예) 이레저레, 촌촌촌촌

규칙(3) [X]_{Adj}, [Y]_{Adj} : [[X]_{Adj} [Y]_{Adj}]_{Adv} 예) 어둑어둑

규칙(4) [X]_V, [Y]_V : [[X]_V [Y]_V]_{Adv} 예) 흥글흥글

규칙(5) [X]_R, [Y]_R : [[X]_R [Y]_R]_{Adv} 예) 오골오골, 와랑치랑

(5) 접두사 설정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제주 방언의 26개의 접두사와 서사 무가에만 나타나는 6개의 접두사 의미를 분석하였다.

① 형태면으로 형태 변화가 일어나 특정한 조건의 어기와 결합하여 의존성을 띤다.

② 분포면으로 접두사는 분포의 제약이 심하다

③ 기능면으로 비분리성과 수식의 제한을 보인다.

④ 의미면으로 접두사는 실질 형태소가 의미 변화를 겪어 추상화된 단위이다.

⑤ 음절면으로는 단음절성으로 제주 방언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㉔ 강-/격-/건-, ㄱ랑-, 웨-, 놀-, 내-, 똥-, 개-, 꾀-, 춤-, 매-/맨-, 촌-, 치-, 도-, 엇-,
짖-, 다슴-, 한-, 수(首)-, 금(金)-, 섬-, 느단-, 웬-, 소(小)-, 아꾼-, 왕-, 맞-

㉕ 신-, 시-, 지-, 연-, 제-, 서-

(6) 접미사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접미사를 정리하였다.

① 기능면에서 통사 범주의 변화를 일으킨다.

② 분포면에서 제약을 갖는다.

③ 의미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더하여 어휘적 의미를 첨가하거나 의미 제약이 따른다.

㉔ 명사 파생 접미사

-거리, -걸리, -치기, -데기, -싸리, -이/-오이/-영이/-앙이, -칭/-나칭, -통이,
-바치/-와치/-바시, -장이/-쟁이/-쟁이, -지기, -잡이, -님, -군, -생이, -아리/-어리,
-아지/-어지/-야지/-오마지/-암지, -바되/-바테, -따시, -으랭이, -뎡이, -치, -옴,
-영/-앙, -태기, -멍/-망, -방, -셀, -다리, -방맹이, -망둥이, -짱, -계/-개, -애, -기,
-(으)ㄱ, -배기, -락, -우리, -애, -다리

㉕ 동사 파생 접미사

-오/-우-, -호/-후-, -수-, -이-, -지-, -기-, -이우-, -뜨-, -치-, -히-, -리-, -아지/-
-어지, -추-, -흥-, -지-,

㉔ 형용사 파생 접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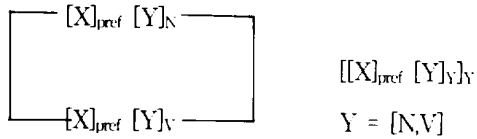
-암-, -영-/-양-, -이롱-/-으롱-, -흐-

㉕ 부사 파생 접미사

-이/-기, -억/-악/-락, -우-/-후-, -영, -신, -직, -잇, -곰, -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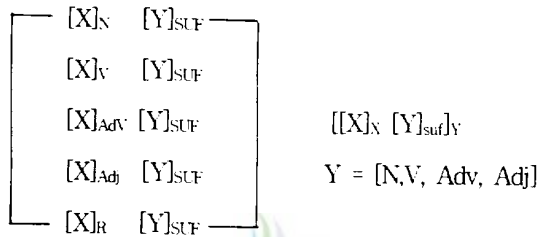
(7) 접두사와 접미사 파생 규칙은 다음과 같다.

ㄱ. 접두사



예) 똥소로기, 치달아

ㄴ. 접미사



예) 걸바시, 앓지다, 느잡다, 하영



이 논문은 제주 서사 무가 어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제주 방언에서 어휘 형성의 양상과 원리를 살펴보았다. 어휘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서사무가 [본풀이] 를 고찰하여 품사면이나 형성면으로 충분한 어휘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점은 과제로 남긴다.

參考 文獻

I. 논문

- 강영봉(1990), “제주도 방언 관용어 범위”, 「심전 김홍식 선생 화갑 기념 논총」, 제주문화.
——(1993), “제주도 방언의 동물 이름 연구”, 박사 학위 논문, 경기대 대학원.
——(1995), “제주도 방언의 접두사”, 「국문학보」 제13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유리(1992), “무속 신화의 구연 특성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서강대 대학원.
강진식(1994), “현대 국어의 단어 형성 연구”, 박사 학위 논문, 전남대 대학원.
기주연(1991), “근대국어의 파생어 연구”, 박사 학위 논문, 한양대 대학원.
김계곤(1968),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논문집」 3, 인천 교육대.
김규선(1970), “국어의 복합어에 대한 연구”, 「어문학」 23, 어문학회.
김수석(1995), “15세기 국어의 복합어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서강대 교육 대학원.
김정은(1994), “현대 국어의 단어 형성법 연구”, 박사 학위 논문, 숙명여대 대학원.
김창섭(1994),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 박사 학위 논문, 서울대 대학원.
김철남(1992), “근대국어 이름씨의 접미 파생법 연구”, 석사 학위 논문, 동아대 대학원.
김호진(1994), “국어 동사의 단어 구성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고려대 대학원.
김홍범(1985), “근대화기 국어의 접두 파생법 연구 - 현대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연세대 대학원.
김홍식(1975), “缺에 대한 소고”, 「논문집」 7, 제주대.
——(1978), “제주도 지방의 지명에 대하여”, 「논문집」 10, 제주대.
——(1980), “제주도 방언 ‘가쟁이’어고”, 「논문집」 11, 제주대.
——(1980), “‘비바리’어고”, 「현평호 박사 회갑 기념 논총」.
——(1982), “제주도 방언 ‘낭’어고”, 「논문집」 14, 제주대.
——(1982), “접미사 ‘개’에 대하여”, 「심여택 선생 화갑 기념 논총」.
——(1983), “제주도 방언의 접미사고”, 탐라문화 제2호.
남승현(1990), “현대 국어의 반복 부사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충남대 교육대학원.
박경신(1991), “무가의 작시원리에 대한 현장론적 연구”, 박사 학위 논문 서울대 대학원.
박상규(1992), “제주무가와 민요에 나타난 어휘의 성격고”,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 서정미(1994), “현대 한국어 접두 파생어”, 박사 학위 논문, 경기대 대학원.
- 서정수(1981), “합성어에 관한 문제, 「한글」 173·174, 한글학회.
- 송상조(1991),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박사 학위 논문, 동아대 대학원.
- (1992), “제주도 방언 사람 대이름씨에 관한 고찰”, 「제주도 언어 민속 논총」.
- 송철의(1989), “국어 파생어 형성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대학원.
- 시정곤(1993), “국어의 단어 형성 원리”, 박사 학위 논문, 고려대 대학원.
- 유목상(1974), “통어론적 구성에 의한 어형성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5집.
- 이광호(1994), “한자어 접두사 문법 의미적 기능”, 「문학과언어」 15집, 문학과 언어 연구회.
- 이석주(1987), “국어 어구성 연구-복합어와 파생어의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박사 학위 논문, 중앙대 대학원.
-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박사 학위 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 이익섭(1965), “국어복합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30, 국어국문학회.
- (1967), “복합 명사의 액센트 고찰”, 학술원 논문집 6.
- 이재성(1990), “국어접두파생법에 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연세대 대학원.
- 이주형(1981), “국어 복합어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86, 국어국문학회.
- 이홍식(1993), “현대 국어의 고유어 접두사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전남대 교육 대학원.
- 이희자(1995),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대동문화연구」 제30집, 대동문화연구소, 성균관대학교.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파생 접미사 - 몇 개의 재구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 3집,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 정정덕(1982), “합성 명사의 의미론적 연구 - N1, N2 구조를 중심으로-”, 한글 175, 한글학회.
- 최규일(1983), “인체어휘고”, 「국어국문학」 87, 국어국문학회.
- (1989), “한국어 어휘 형성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 논문, 성균관대 대학원.
- 최응환(1994), “보조 용언 구성의 형성적 원리”, 「문학과 언어」 15집, 문학과 언어 연구회.
- 하치근(1987), “국어 파생 접미사 연구”, 박사 학위 논문, 부산대 대학원.

II. 자료

- 유창돈(1979), 「이조어사전」, 연세대출판부.
- 장주근(1973), 「韓國의民間信仰」, 金花舍.
- 赤松智城·秋葉隆(1937), 「朝鮮巫俗の研究 上」, 大阪屋號書店.

- 제주도(1995), 「제주어 사전」.
- 진성기(1968), 「南國의 巫歌」, 제주도민속문화연구회.
- 현용준(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 현평효(1962), 「제주도 방언 연구」(자료편), 정연사.
- 홍정표(1963), 「제주도 민요 해설」, 성문사.

III. 단행본

- 김민수(1983), 「신국어학」, 일조각.
- 노대규(1988), 「국어의미론연구」, 국학자료실.
- 서대석(1980), 「한국 무가의 연구」, 문학 사상 출판부.
- 서정수(1990), 「국어 문법의 연구2」, 한신문화사.
- 이승녕(1985),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이희승(1970),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정동환(1993), 「국어복합어의 의미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주시경(1910), 「국어문법」, 경성박문서관, 「역대문법대계」 1-11 재록.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열번째 고침, 정음문화사.
- 허용(1988),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현용준(1992), 「무속 신화와 문헌 신화」, 집문당.
- Emile Benveniste 著, 「일반 언어학의 제문제Ⅱ」, 황경자 譯(1992), 민음사.
- Roman Jakobson 著, 「일반 언어학 이론」, 권재일 譯(1994), 민음사.

IV. 외국서적

- N. Chomsky(1957), *Syntactic Structure*, the Hague, Mouton.
- L. Bloomfield(1933), *Language*, Holt, Rinehart and Winston.
- Jackson Howard (1991), *Words and Their Meaning*, Longman.
- G. Leech(1974), *Semantics*, Penguin Books.

<ABSTRACT>

Studies on the Word Formation in Cheju Shamanistic Epic

Poo, Hee-Suk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do,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oe, Gyu-II

This paper discusses some linguistic aspects of the language of Cheju Shamanistic epics.

1. I chose to study Shamanistic language for the following reasons :

First, the Shamanistic-epics is a dynamic scene of spoken language because it is not a literary style but a colloquial style. Second, Shamanistic epics have many words representing the whole field of culture so it is easy to gather the necessary words. Third, the reoccurring pattern of structures in Shamanistic epics makes it easy to illustrate the rules of word and phrase formation that I chose to focus on.

I categorized words in 「濟州島巫俗資料事典」, 「韓國의民間信仰」, 「朝鮮巫俗の研究 上」, 「南國의 巫歌」.

2. I formulated rules regarding the following.

(1) Compound Noun Structures

$[X]_N, [Y]_N \rightarrow [[X]_N [Y]_N]_N$

$[X]_N, [Y]_N \rightarrow [[X]_{NR} \wedge / \text{의} / \emptyset]_{DEF} [Y]_N]_N$

$[X]_{Adv}, [Y]_N \rightarrow [[X]_{Adv} \wedge / \text{의} / \emptyset]_{DEF} [Y]_N]_N$

(2) Compound Verb Structures

$[X]_V, [Y]_V \rightarrow [[X]_V \text{-어/-고-}]_{Adv} [Y]_V]_V$

$[X]_N, [Y]_V \rightarrow [[X]_N [Y]_V]_V$

$[X]_{Adv}, [Y]_V \rightarrow [[X]_{Adv} [Y]_V]_V$

(3) Compound Adverb Structures

$[X]_N, [Y]_N : [[X]_N [Y]_N]_{Adv}$

$[X]_{Adv}, [Y]_{Adv} : [[X]_{Adv} [Y]_{Adv}]_{Adv}$

$[X]_{Adj}, [Y]_{Adj} : [[X]_{Adj} [Y]_{Adj}]_{Adv}$

$[X]_V, [Y]_V : [[X]_V [Y]_V]_{Adv}$

$[X]_R, [Y]_R : [[X]_R [Y]_R]_{Adv}$

3. I have described the usage of prefixes in the areas of morphology and semantics.

First, the prefixes change in morphology according to the given root. Second, the prefixes cannot be added to all words, i.e. they have specific rules of application. Third, the prefixes can no longer stand alone, i.e. they are inseparable. Fourth, the essential meaning of many of the prefixes has changed in modern Korean. Fifth, the adjective created by the addition of certain prefixes have a limited ability to modify nouns. Finally, I have noted that almost a quarter of all the prefixes I studied have two or three syllables in Cheju dialect.

4. I have described the usage of suffixes in the areas of morphology and semantics.

First, the addition of a suffix to a word can change its part of speech, i.e. a noun can become a verb. Second, the addition of suffix to a word is not always possible as opposed to inflected suffixes.

Third, the addition of suffix can narrow or broaden the original meaning of the word.

a. Rules of prefix structure

$[X]_{pref} [Y]_N$ $[X]_{pref} [Y]_V$		$[[X]_{pref} [Y]_V]_V$

b. Rules of suffix structure

$[X]_N [Y]_{SUF}$ $[X]_V [Y]_{SUF}$ $[X]_{Adv} [Y]_{SUF}$ $[X]_{Adj} [Y]_{SUF}$ $[X]_R [Y]_{SUF}$		$[[X]_x [Y]_{suf}]_Y$	
			$Y = [N, V, Adv, Adj]$

Due to the limited specific nature of the Shamanistic epics, I was only able to classify a limited number of words. Given the richness of the Cheju dialect, there are many words left to study from other sources.

1. 파생어 어휘 목록

- (1) 신풀저 : 신풀다 : 신의 내력과 출생을 말로 풀어 내다
 군웅 본산국을 신풀저 흡네다 (91:46)⁸⁰⁾
 난산국 신풀저 흐는다 (214:88)
- (2) 신굴아 : 갈아서 : 신에게 바칠 쌀을 갈아서
 신굴아 우올리며 (142:7)
- (3) 신뻘 : 뻘
 열두야 신뻘 양단 득지 (58:383)
- (4) 신가시저 : 씻다
 부정 서정이랑 연찰물로 신가시저 (53:307)
- (5) 신나수와 : 나게 하여
 좋은 베슬도 신나수와 주고 (834:70)
 먹을 년 입을 년 내수읍서 : 먹을 것, 입을 것 낭게 하십시오(177:650)
- (6) 신젯줄 : 젯줄
 신젯줄이 사왔고나 (156:275)
- (7) 신수품서 : 내려오십시오 (143:22)
 신수퍼 : 신이 내려와 모여 (50:275)
 신수퍼다 : 젯상을 옮겨다 놓아 (50:273)
 기메기전 신수품고 : 기메를 만들어 올리옵고 (49:262)
 신수퍼사저 : 신내려 서차고 (179:4)
 신수푸는다 : 신내려 오는데 (209:26)
- (8) 신벌엿수다 : 진설하였습니다
 제물 제양 신버렸수다 (79:9)
- (9) 신수미 : 소무(小巫)
 열두 신수미 거느리고 (진초50)⁸¹⁾
- (10) 신부찌자 : 붙이다 (380:8)
- (11) 연질 : 길
 초공 연질 : 초공신이 다니는 초공길 (177:648)

80) 현용준(1980), 전계서, p. 91. 이 부분에서 발췌한 단어의 연번이다. 이하 같다.

81) 진성기(1968), 「南國의 巫歌」, p. 50. 이하 '진할'은 '진성기 할망본'은 '진이'는 '진성기 이공본', '진문'은 '진성기 문전본', '진할'은 '진성기 할망본', '진체'는 '진성기 체사본'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 (12) 연찰물 : 찻물(茶水)
연찰물로 신가시저 (53:306)
- (13) 연드리 : '드리'는 '차례', '순서'의 의미
서천강 연드리도 노래 가자 (119:220)
- (14) 연드레 : 다래
새곰새곰 연드레도 먹구저라 (154:219)
- (15) 연물 : 곳할 때 필요한 일련의 약기
연물 웃영 곳 못호영 (진초50)
- (16) 연붓대 : 붓대
좀이 곳득 연붓대를 심고 (진문136)
- (17) 연서답 : 빨래
대구덕 연서답 담아야전 (235:467)
- (18) 제이르자 : 이르자 : 말하다 (33:1)
제일릅긴 : 이르웁기는 (33:2)
- (19) 제맞인 : 맞다 (80:19)
제맞인 날 받아놓고 (148:119)
조은 날 조은 시 제맞인 날 받았수다 (80:19)
- (20) 제삼석 : 푸다시 따위의 곳을 하는 자리에서 세 번 되풀이 함 (721:316)
- (21) 지올려 : 울리어
곳을 잘하여 대천국을 지올려 (174:601)
비비둥둥 지올려 (34:32)
- (22) 지냉겨 : 넘기어
주잔 지냉겨 드립네다 (59:394)
불끼웁잔도 지냉깁네다 (138:539)
지냉기자 : 넘기자 (115:148)
- (23) 지날루자 : 나누자 (115:151)
- (24) 지사비자 : 지사비자 (138:546)
지사비명 : 사귀며, 달래며 (210:28)
- (25) 지부찌고 : 지부찌다 : 붙이고 (138:546)
지부찌며 : 붙이며 (147:43)
지부찹서 : 붙이십시오 (211:52)
지부찌자 (89:14)
- (26) 지달래명 : 달래며 (135:492)
지달래고 (218:183)

- (27) 지올려 : 올려 보내어 (226:226)
- (28) 지돋호와 : 돋우어 (280:230)
지돋호고 : 돋우고 (310: f:8줄)⁸²⁾
- (29) 지늦추니 : 낮추니 (310: f:9줄)
- (30) 시군문 : 신이 하강하여 오는 곳의 문
머언 정 시군문으로 (145:64)
- (31) 시권제삼문 : 권제삼문 : 중이 부처께 바치기 위하여 촌가에서 빌어가는 齋米
시권제삼문 받으레 느려 샅읍네다 (146:75)
권제삼문 받아다 (105:5)
시권제 받으레 느려사 (316:23)
시권제삼문 받으레 느려 샅수다 (317:35)
- (32) 시결명 : 결명 : 잡귀신을 대접하기 위해 제(祭) 지낸 후 제반을 걷어다 던지는 일
시결명 무어 (138:545)
- (33) 시군출덜 : 군출들
시군출 흠어지민 열니 동서 (94:100)
- (34) 시결어보니 : 걸어 올라 보니 (763:19)
- (35) 서흠서미 식원미 : 食糝, 元味 서미의 '서' (451:67)
- (36) 서난해여져 : '서난'은 '가난'에서 만들어진 단어
서난하계 (123:285)
- (37) 부정신 서정신 (53:307)
- (38) 서붓 : 붓(筆) (737:41)
- (39) 신나락흐는 : 신나락흐다 : 신나하다 (143:22)
신나락흐고 (91:44)
귀신은 본을 풀민 신나락 흐는 법이웁고,
생인은 본을 풀민 백년웁수지는 법이웨다 (142:10)
구신은 본 풀어 신나락흐고, 생인은 본풀어 칼랑 불이라 (91:44)
현용준은 '신나다'의 명사화로 보았으나 방언에서 '-락'이 붙어 명사로 되는 경우에는 '오
좀 굴길락(갈기기, 갈길내기) 허여 봄'이 또는 '곱을락(숨기)'에서처럼 '-기, 내기'의 의미로 실현
된다. 여기서 '신나락'을 명사형으로 보면 '신나기, 신나는 내기'의 의미가 되어 의미 해석이 적절
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는 방언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사화 접미사인 '-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
라서 '신나다' → '신나락' → '신나락흐다'로 바뀐 것이다.
- (40) 영계님 : 영혼을 일컫는 말 (446:1)

82) 張濤根(1973), 전게서, p. 310. 이 부분 위쪽 9줄에서 발췌하였다.

- (41) 석살림 : 석(긋의 단위) : 즐겁게 신을 놀리고 기원하는 절차 (88)
- (42) 해말림 : 헤어지게 말리는 일 (57:375)
- (43) 상대잡이 : 북치는 심방
 중대잡이 : 징치는 심방
 하대잡이 : 팽과리 치는 심방 (574:376)
- (44) 맞상 : 마주 먹게 차린 밥상 (125:318)
 맞앉아 : 마주 앉아 (진이86)
 맞사 (진이90)
 맞걸은 : 서로 마주 보게 걸은 (진할156)
- (45) 즈봄 : 젓가락, 잡는 도구 (진문125)
- (46) 고장 : 꽃 (진할164)
- (47) 털어찰 : 털어치다 (진문127)
 끈치다 (진초40)
- (48) 누르뜨명 : 누르면서 : 누르뜨다 (진이92)
- (49) 지망 : 김 (110:77)
- (50) 소곱 : 속 (124:297)
- (51) 촛나룩 : 찰진 쌀 (161:362)
- (52) 춤쌀 : 질긴, 든든한 실
 춤쌀로 목을 메연 (145:58)
- (53) 춤돌 : 단단하고 매끈한 돌 (368:46)
- (54) 춤때 : 뉘싯대 (424:100)
- (55) 춤미레깃대 : 떡을 만들 때 납작하게 미는 막대기 (368:49) LIBRARY
- (56) 춤매 : 참매 : 매(鵞)의 이름 (690:166)
- (57) 베이난 : 보니까 (35:42)
 베입네다 : '베이다(보이다)'의 의미는 '보입니다'가 아니라 '보여 드립니다'로 쓰인다.
 베오 : 뵈웁니다 (145:15)
 뵈네다 : 뵈웁니다 (106:9)
- (58) 놀개 : 새의 날개 (34)
- (59) 금동 : 동쪽 (34:18)
- (60) 금마답 : 마당 (80:26)
 금마답을 나상 저 산 압을 (149:128)
- (61) 금산 : 금산 사별 오송송이 백인 듯한 (109:72)
- (62) 금하늘 (62)
- (63) 금공스 : 공신(恭神), 축원, 제의 (79:11)(142:2)

- (64) 열두 금제비칭 : 많은 무당들 (49:253)
- (65) 금바랑, 금바라 : 바랑 (110:89)(142:5)
- (66) 금시리드리 : 시루다리 (179:1)
- (67) 금세숫물 : 세숫물 (553:83)
- (68) 금베릿물 : 벼릿물 (553:10)
- (69) 금책 : 책 (737)
- (70) 감이 : 매듭 (182:40)
- (71) 감애 : 머리에서 감아드는 부분 (153)
- (72) 꽃버랭이 : 작은 벌레 (37:101)
- (73) 똥소로기 : 솔개 (37:103)
- (74) 풀따시 : 팔뚝 (39:127)
- (75) 풀치 : 팔찌 (752:63)
- (76) ㄱ리치기 : 검지손가락 (187:49)
- (77) 귀오개 : 새끼손가락 (187:43)
- (78) 키다리 : 장지 (187:49)
- (79) 니피쟁이 : 엄지손가락 (187:53)
- (80) 툇가리 : 툇 (188:62)(394:14)
- (81) 즈깁이 : 겨드랑이 (262:926)
- (82) 창걸리 : 眼疾 (510:29)
- (83) 모고마지 : 목 (239:548)
- (84) 낫바되 : 잇몸 (199:138), 낫바대 : (336:401)
- (85) 야개기 : 목
야개기나 먹읍서 (199:148)
- (86) 존동이 : 잔등
존동으로 우막우막 먹어가고 (199:150)
- (87) 몸뻥이 : 몸뚱이 (410 : 239)
- (88) 꼴랭이 : 꼬리
꼴랭이나 먹읍서 (199:152)
- (89) 흘목다리 : 팔목 (554:99)
- (90) 눈망둥이 : 눈을 낮추어 일컫는 말 (461:56)
- (91) 걸루다 : 견계 하다 (711:132)
- (92) 발뒤치기 : 발꿈치 (356:775)
- (93) 입싸리 : 입부리
입싸리 꿰운다 : 바지 뒷허리 이를 잡으려고 고개를 돌리니까 입술이 비뚤어짐 (331:289)

- (94) 울러르기 : 우러러 보기, 욕심내기 (41:163)
- (95) 마음판 : 마음씨 (82:89)
- (96) 짓놀아 : 마구날아 (59:385)
- (97) 그늘루곡 : 그늘우다 : 돌보다 (450:154)
- (98) 늦이 : 낮게 (146:76)
 늦이 시르르 비웁소서 (153:194)
 늦이 뜬 건 (238:533)
- (99) 공이 먹고 가겠느냐 (229)
 공히 먹고 가겠느냐 (146:82)
- (100) 굶이 : 굶게 (272:112)
- (101) 영계울림 : 심방이 영혼을 대신하여 울며 이야기 하는 것 (452)
- (102) 걸바시, 계와시 : 거지 (196:92)(318 :下:3)(144)
- (103) 노래와치 : 노래 잘 하는 사람 (574:375)
- (104) 풍류와치, 풍노와치 : 풍류 잘 하는 사람 (574:375)
- (105) 몸쌀 : 몸질
 앞이 들어 몸쌀호곡 (157:289)
- (106) 줌지명 : 품게 하면서 (359:823)
- (107) 들리우는 : 들게 하는
 줌 들리우레, 줌 들리우는 (131:418)
- (108) 앓전 : 앓게 하다
 은제(銀著) 두 계 걸천 놓고 야기 앓전 보레 보난 (157:279)
 해남석 앓안 졸단 보난 (409:220)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109) 천년둥이, 만년둥이 : 여기서는 개이름으로 쓰임 (128:362)
- (110) 백인 : 백이다 : 박히다 (109:72)
- (111) 궁예청 : 궁녀청, 시네청 (681)
- (112) 업계나청 : 업계 (222:227)
 업계내청 : 업저지들 (621:271)
- (113) 테우리청 : 소모는 이들 (380:7)
- (114) 업계 : 업저지, 업는 이 (61:414)
- (115) 과양생이 : 광양 고을에 사는 사람 (232:406)
- (116) 게염지 : 개미 (345:576)
 게예미 : 개미 (345:569),
- (117) 마니짱 : 도리도리하기 (569:308)
- (118) 삼삼음짱 : 삼짜기 (570:324)

- (119) 꼬리감음찡 : 꾸리 감기 (570:325)
- (120) 줌재움찡 : 잠재우기 (569:307)
- (121) 맥임찡 : 먹이기 (569:303)
- (122) 품찡 : 키로 부치기 (569:302)
- (123) 침찡 : 치기, 치는 짓 (569:301)
- (124) 젓맥임찡 : 젓 먹이기 (570:319)
- (125) 노념찡 : 놀이 (568:284)
- (126) 문딱 : 모두
 콩이 문딱 캄시메 (127:346)
- (127) 나님 : 나가는 님 (63:442)
- (128) 드님 : 드는 님 (63:443)
- (129) 품풀이 : 품팔이 (193)
- (130) 빨리 : 빨리 (195:53)
- (131) 물즙이 : 물에 말아먹는 것
 물즙이라도 먹영 가랭 굴으라 (125:314)(195:64)
- (132) ㄱ랑비 : 가랑비 (126:331)
- (133) 주냉이 (201:201)
- (134) 웨돌쳐귀 : 외돌쳐귀 (197:102)
- (135) 웨불리, 웨가지, 웨송애 (114)
- (136) 웨딸애기 : (174:604)
- (137) 웨눈박이 : 외눈박이 (359:835)
- (138) 웨지동 : 웨기동 (549)
- (139) 할망 : 할머니 (197:108)
- (140) 하르방 : 할아버지 (197:109)
- (141) 막댕이 : 막대기 (202:218)
- (142) 병에기 : 병아리 (460:20)
- (143) 당지기, 절지기 : 당이나 절을 지키는 사람 (107:27)
- (144) 섬지기, 말지기, 돼지기, 흙지기 : 쌀을 지키는 신 (70:518)
- (145) 굴묵지기, 배릿물지기 : 방에 군불을 때는 사람, 벼룻물 길어 오는 사람 (166:468)
- (146) 고영 : 고이 (108:42)
 퀘영퀘영 : 고이고이 (449:44)
- (147) 하영 : 많이 (199:147)
- (148) 돌챙이 : 석수장이를 낚추어 부르는 말 (465:115)
- (149) 췌처리 : 대장장이 (108:48)

- 철쟁이 : 대장장이 (173:588)
- (150) 태운 : 타다의 사동
하늘에서 태운 과거로다 (168:502)
태운 : 주어진
나에게 태운 게 아닌가 (279:215)
- (151) 도올려 : 다시 올려
도올리며 : 다시 올리며 (86:159)
도올라 : 도로 올라 (539:167)
- (152) 도느림서 : 도로 내리십시오 (574:363)
- (153) 도생기자 : 도로 말하여 드리자 (539:18)
- (154) 도숙읍서 : 도로 내려 서십시오 (137:530)
도숙어들고, 도숙어나고 : 도로 숙어 들고, 도로 숙어 나고 (738:56)
- (155) 발질 : 발길질 (165:431)
- (156) 곱져 : 곱지다(감추다) : 감춰, 숨겨 (157:284)
곱져 도렌 : 감추어(숨겨) 달라고 (514:32)
- (157) 업져 내연 : 업혀서, 업혀 내어서 (687:113)
- (158) 으름 : 을 + 음(열매) (154:225)
- (159) 지레 : 길이, 키 (156:267)
- (160) 귀야지 : 귀통이 (252:752)
- (161) 칩기 : 치우기
방안 칩기 (164:410)
- (162) ㄹ득이레 : 가득하게 하러 (101:77)
- (163) 가쟁이 : 가지 (172:564)
- (164) 울미 : 움이 (174:606)
- (165) 가지쟁이 : 낫사발 뚜껑 (152:178)
- (166) 왼뿔 : 왼쪽 뿔 (39:130), 왼긋등, ㄴ단긋등 : 왼뿔, 오른뿔 (684:59)
- (167) 웬모실 : 他里 (744)
- (168) 굴길락 : 갈기기 (325:171)
- (169) 깨완 : 깨게 하여 (144:40)
- (170) 새드림 : 모든 사악한 새를 쫓는 절차.
새와 매는 비인격적인 (邪, 魔)를 구상화 시킨 잡귀 (76)
- (171) ㄹ새 : 가위 (308)
- (172) 바져서 : 못 이기어 (57:365)
- (173) 뺨띠우고 : 뺨뺨하게 하고 (112:107), 뺨뺨는 : 조르는, 죄는 (338:439)

- (174) 한머들 : 큰 돌무더기 (482:165)
- (175) 한크르 : 큰 그루 (305:580)
- (176) 한집 : 큰집 : 분향신을 높여 일컫는 말 (69:494)
- (177) 누렁하다, 누리롱하다, 별정하다 : 누렇다, 누르스름하다, 벌겋다 (진이76)
- (178) 개냥 : 누리장나무 (333:346)
- (179) 섭돌 : 속에 구멍이 있어 비어 있고 우둘투둘한 돌 (368:45)
- (180) 앓인베기 : 철쭉 (330:282)
- (181) 스망시리 : 재수좃게 (238:538)
스망일이 : 재수좃게, 다행스럽게 (469:37)
- (182) 느자운 : 낮은 (121:250)
- (183) 줌이 : 엄지손가락과 장가락을 등글게 맞붙인 둘레의 크기 (115:153)
줌이 버은 : 한줌이 넘는 (661:566), 줌이 ㄴ든 : 한 줌이 가득한 (284:283)
- (184) 아늑 ㄴ득 : 아늑이 가득 (323:132)
- (185) 체와 : 체우다 (193:24)
- (186) 맥이 : 막기 (681:4)
- (187) 치달아 : 치달아 (238:537)
- (188) 엇데답 : 어긋나게 겹결에 잘못 나온 대답 (242:601)
- (189) 머쳤구나 : 머물게 했구나 (198:132)
- (190) 잘곰 : 잘 (225:281)
- (191) 누겨줍서 : 느슨하게 해 주십시오 (217:1153)
- (192) 피쟁이 : 백정 (272:93)
- (193) 비근다리 : 두툼상어 (331:287)
- (194) 바농뎡이 : 바늘 (352:694)
- (195) 머굴챙이 : 병어리를 낮추어 부르는 말, 속이 꼭 막힌 사람 (382:58)
- (196) 모지리 : 행동이 모진 사람 (384:95)
- (197) 곱지자 : 감기자 (385:109)
- (198) 귀마구리 : 병들어 이삭이 나지 않은 조 (364:912) 태우리 이름 (381:13)
- (199) 좁져 : 펜지 혼장 좁져(끼워) (358:809)
- (200) 흘림 : 유혹, 흘림 (401:58)
- (201) 지시렁이 : 늙어서 새끼 못 낳는 마소, 돼지 따위 (469:34)
- (202) 굴개비 : 개구리 (388:149)
- (203) 부롱이 : 거세하지 않은 수소 (388:157)
- (204) 돌새기 : 돌멩이 (785:10)
- (205) 아끈장대 : 작은 장대 (34:28), 아끈가미, 한가미 : 작은 매듭, 큰매듭 (182:40)

아끈돈지, 한돈지 : 작은 매듭, 큰 매듭 (100:68)(100:68) : 심방이 무명으로 자기의
 양쪽 팔을 감아 묶어 매듭을 만든 것,
 아끈몰망 한몰망 : 작은 해조류, 큰 해조류 (366:15)(366:16),

2. 합성어 어휘 목록

- (1) 신발륜 : 모심을 받아 그 집안을 도와 주는 (853:24)
- (2) 우올리며 : 우로 올리며 : 공대하여 올리며 (87:168)(142:8)
 우올렸더니 : 올렸더니 (107:32)
- (3) 옷상실 : 윗마을 (192:2)
- (4) 우윗넉 : 위쪽 (192:16)
- (5) 옷지방 : 윗대들보 (196:88)
- (6) 옷아구리 : 윗아가리 (713:173)
- (7) 알아구리 : 아랫아가리 (713:174)
- (8) 우거린건 : 술이 익은 후 맨 처음 떠낸 것은 (485:217)
- (9) 알거린건 : 다시 떠낸 것은 (485:218)
- (10) 옷제반 : 제를 지낸 후 젓상 위 각종 재물을 조금씩 처음 모은 것 (138:10)
- (11) 알제반 : 옷제반을 걸은 후 다시 각종 재물을 조금씩 모은 것 (138:11)
- (12) 우알로 : 위아래로 (324:156)
- (13) 우씨 : 알씨를 뿌려 밭을 간 연후에 다시 뿌리는 씨 (389:172)
- (14) 알씨 : 밭을 갈기 전에 먼저 뿌려 갈아서 흙 밑에 묻히게 하는 씨 (389:169)
- (15) 알엿넉 : 아래쪽 (192:14)
- (16) 알자리 : 밑에 깔아 놓는 자리 (80:27)
- (17) 젓상실 : 아랫마을, 앞마을
 올라 옷상실, 내려 젓상실 (192:3)
 '젓'을 '결'의 의미로 보면 가까운 마을의 의미도 될 수 있다
- (18) 밧도백 : 밧입구밖, 입구밖 (345:571)
- (19) 예시잠 : 여우잠 (진문122)
- (20) 상눌굽 : 상난가리자리 (331:288), 중눌굽, 하눌굽
- (21) 상갓 : 상성(上城), 목장 구획시 가장 한라산 가까운 곳의 담장 (739:77)
- (22) 상손가락 (352:692)
- (23) 가막중생 : 까마귀짐승 (144:39), 개중생 (646:304)
- (24) 놀씨 : 발아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여분으로 위에 뿌리는 씨 (389:177)
- (25) 익은넉 : 김을 매거나 타작할 때 이미 타작이 끝난 쪽 (392:225)

- (26) 그른질 : 가로질러 가는 길 (406:162)
- (27) 언메 : 銀米, 하얀 멧밥 (461:49)
- (28) 둔메 : 甘米 단 멧밥 (461:50)
- (29) 노기메 : 낫그릇에 쌀을 넣고 감을 올려 쥘 멧밥 (461:51)
- (30) 당을 메어서 : 심방이 당에 전속되어 무제 집행을 전담하고 당을 지키다 (634:115)
- (31) 불그락속담 : 불평 등 쓸데 없는 잔소리나 군소리 (451:72)
- (32) 가막새 : 까마귀 (722:340)
- (33) 문잡안 : 문을 잡다 : 문을 잠그다 (144:50)
- (34) 백물래 : 백모래 (173:592) 백모살 (36)
- (35) 큰성 : 막내가 만형을 부를 때 (195:67)
- (36) 큰심방 : 굿할 수 있는 기능이 가장 뛰어난 기능의 심방 (99:41)
- (37) 큰상전 : 남주인 (155:233)
- (38) 큰마통이 (198:123)
- (39) 큰딸아기 : 장녀 (194:46)
- (40) 셋성님 : 막내가 둘째형을 부를 때 (196:81)
- (41) 셋상전 : 여주인 (155:234)
- (42) 셋마통이 (198:131)
- (43) 셋딸아기 : 차녀 (194:49)
- (44) 나까방석 : 시루떡 (261:903)
- (45) 죽은심방 : 보통 정도의 굿 기능의 소유자 (11)
 제비 → 소미 → 죽은심방 → 큰심방
- (46) 죽은마통이 : 죽은(小) + 마(麻) + 통이 (199)
- (47) 죽은딸아기 : 막내 (194:50)
- (48) 말жат딸 아기 : 막내딸 아기 (695)
- (49) 구덕혼스 : 아기 구덕에 눕혀 재울 때 미리 서로 정혼하는 일 (진이80)
- (50) 모물핍벽 : 메밀범벅 (128:359)
- (51) 굽부리 : 산에 움푹 패인 분지 (459:12)
 산굽부리 : 산굽부리, 산에 패인 구멍 (621:269)
- (52) 츠나록썰 : 찰벼썰 (199:156)
- (53) 나록제 : 벼의 겨 (162:375)
- (54) 거은물 : 거을다(거슬다) + ㄴ+ 물 : '아래서 위로 거꾸로 흐르는 물'이란 뜻으로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마음이나 감정을 뜻하는 단어 (85:135)(159:322), 중세 국어 '뜨들 거스려(逆情)' <능엄 2:27 >와 의미가 통한다. ㅅ이 약화된 형태를 보인다.
- (55) 질스미 : 소매길이 (517:19)

- (56) 올레장군 : '올레'는 우레
중세 국어 '올에 번게호니 사로미 다 노라더니<석 6:32>'에 나타나고, 방언에서는 '올레장군 올레사제 (37:91)' 또는 '올뤼'로 나타난다.
- (57) 마바리 : 마(馬) + 바리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
낭 천 바리 드령 화장시경 (226)
중세 국어 '내 발마 보아 (我托看)<老초하:29>'에서 찾아 볼 수 있고, '발로 재다'의 뜻으로 쓰이는 방언은 '밧아/밭다'인데 이 말에서 장작의 단위를 나타내는 바리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밧다 : 밧 + 이 → 밧삐 → 밧이 → 바리
- (58) 밧아아전 : 나무나 담 등 넓이가 아주 좁은 곳을 걸어 넘어서 (39:122)
- (59) 밧아나도 : 타나가도, 밧다 : 담장 따위 밧 붙이기 어려운 곳을 걸어가다 (172:547)
밧(다) + 아/어 + 나다 → 밧아나다 (683:41)
밭에서 밧다가 나왔다면 영변화. 이때의 '밭'은 길이를 재는 단위에서 동사로 바뀐 것이다. 울로 밧고 실로 밧고 놀라 : 두 팔을 활짝 벌린 길이를 '한 밧'이라 하고 그 밧로 물건의 길이를 재는 것을 '밭다'라고 한다. 여기서는 '천신다리'인 무명에 올라 올라 실의 길이를 '밭로 재면서 춤추어라'의 의미로 곧 천신 다리인 무명을 두 팔에 들어 놀리면서 춤추라는 뜻이다.
- (60) 젓놀개 : 앞날개 (162:374) 젓놀개기 : 앞날개 (271:87)
- (61) 놀갯물 : 날개물 (37:106)
- (62) 마농송키 : 마늘채소 (657:495)
- (63) 지밧제하고 : 지바침하고 (656:474) 무제 지낸 후 신에게 바치는 뜻으로 젓상에 올렸던 제물을 조금씩 떠서 백지에 싸서 던지는 것
- (64) 몰밭통 : 말밭굽 (37:8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몰굽 : 말밭굽 (485:221)
- (65) 새넙은 : 폭이 넓은 (468:26)
- (66) 몰막, 췌막 : 마구간 (338:435)
- (67) 몰막쉬 (194:35)
- (68) 몰무제미 : 말고삐 (344:550)
- (69) 몰물 : 馬水 (764:38)
- (70) 버렁이밥 (200:166)
- (71) 노누애기 : 노는 애기(遊兒) : 약지 (187:42)
- (72) ㄹ갈리 : 옆구리 (189:78)
- (73) 우갈리 : 갈비 (467)
- (74) 좌송 : 소돼지 복부 부분을 베어낸 고기 (467:2)
- (75) 좌비과 : 허리에서 엉덩이 쪽 부분을 베어 낸 고기 (467:3)
- (76) 좌술디 : 목부분 (467:4)

- (77) 아귀톡 : 툃 (188:64)
- (78) 독막립 : 무릎
독막립 친 물이 있어져 (128:367)
- (79) 독다림 : 무릎을 묶는 대님 (468:30)
- (80) 상가매 : 상가마(上旋毛) (58:380)
- (81) 좃가심 : 좃가슴 (693:217)
- (82) 좃고고리 : 좃꼭지 (745:183)
- (83) 새줄라 : 혀가 짧아 (716:242)
- (84) 양단독지 : 양쪽 어깨 (58:383)(109:70)
- (85) 눈넙은 : 너비가 넓은 (468:28)
- (86) 치맏곰 : 치맏고름
- (87) 뇌엄 들러 : 열려(開明) (34:17)
뇌엄들르게 : 잇몸 들게, 먼동이 트게 (227:314)
- (88) 머릿곰 : 긴 머리 굽이쳐 감은 부분 (113:122)
- (89) 발창 : 발바닥 (190:81)
- (90) 몸받은 : 인간이 신에게 권능을 이어 받은 (506:1)
- (91) 안침 : 내장 (471:90)
- (92) 첫간 : 간 (471:93)
- (93) 흘목 : 팔목 (168:499)
흘목을 비여잡안 대상통곡 (230:378)
- (94) 셋비 : 동풍에 실려온 비 (41:146)
- (95) 검뉴울꽃 : 검게 시들어가는 꽃 (41:152)
금뉴울꽃 : 이우는 꽃↔ 번성꽃
금뉴울어 : 이올어, 몸이 쇠약하여 (216:217)
검울꽃 : 검게 이우는 꽃 (311)
- (96) 은동이, 낫동이, 주수리남동이 : 은으로 된 동이, 유기로 된 동이, 나무로 된 동이 (41:154)
- (97) 줌심백 : 잠자기 내기 (41:155)
- (98) 옷앞쌈 : 옷앞자락
옷앞쌈 돌루는 즈식 : 옷앞자락을 울며 좃는 자식 (46:213)
옷앞쌈을 모도치저 : 수절하고자 (249:711)
- (99) 올쇄 : 열쇠 (진문129)
- (100) 관제쌈 : 冠帶의 앞자락 (705:65)
- (101) 나뭇쌈 : 나뭇잎 (73:556)

- (102) 버드낭설 : 버들잎 (327)
- (103) 딸라가게 : 따라가게 : 딸르다 (164:421)
- (104) 개하르방, 개할망 : 浦神, 개는 '浦' 의미 (514:219)(514:220)
- (105) 개하르바님, 개할마님 (474:10)
- (106) 개보말 : 고동의 일종 (710:131)
- (107) 갯맛(海邊) (687)
- (108) 질스미로 : 소매길이로 (517:19)
- (109) 성클 : 형틀 (494:57)
- (110) 상단클 : 위쪽에 있는 베틀 (319:74)
- (111) 당클 : 마루방의 벽에 널판지를 선반처럼 달아 맨 祭棚 (101)
- (112) 마농송키 : 마늘 (657:495)
- (113) 귀궂고 : 귀궂다 : 모두 갖추고 : '귀-'는 어근 (144:34)
 고대강실(高臺廣室) 높은 집에 종하님 귀궂고
 머리 궂은 : 머리가 갖추인 (81:47)
 시발 궂은 : 세발이 갖은 (82:72), 궂다 (備, 具)
 중세 국어 '사로미 본래 비록 人雖本具'(능엄:3:11)'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114) 각단밭 : 띠밭(593:85)
- (115) 청대왓, 흑대왓, 청새왓 : 청대밭, 흑대밭, 청띠밭 (131:408)
- (116) 어명콧 (307:636)
- (117) 앓인제 : 앓아서 집행하는 곳 (721:315)
- (118) 녹명굴리 : 녹명굴리다 : 분별하다 : 福祿의 유무를 관별하는 쌀
 녹명굴리로 녹이 떨어지명 (138:542)
- (119) 무우남 : 산호수 (594:10), 무위나무 (707:87)
- (120) 메살리자 : 메살리다 : 메어다 살리자 (181:34)
 잉어메살리저 : 잉어 메어다가 살리려고 (137:528)
- (121) 백강생이 : 백강아지 (160:340)
- (122) 디리놀리고 : 디리놀리다 : 들이(人) + 놀리다 : 계속 놀리다 (209:9)
- (123) 드리울림시민 : 계속 울리고 있으면 (172:557)
- (124) 즈진안개 : 짙은 안개 (549:44)
- (125) 보인안개 : 보안 안개 (549:55)
- (126) 즈지어남 : 농도 짙은 안개 (507:22)
- (127) 우궂혀 : 굽어 내려 (위는 '位'의 뜻) (209:16)
 우궂혀 살려옵서 : 위(位) 굽어 살리어 오십시오 (60:398)(請神)
- (128) 업게 삼승 : 업저지의 보호신 (61:416)

- (129) 던데떡, 쯤메떡 : 잘 키워 주도록 빌며 올리는 떡 (547:20)(547:21)
- (130) 냇골창 : 냇골짜기 (478:66)
 냇빌레 : 냇골짜기의 큰 돌 (697:254)
 개골창 : 개울골짜기 (478:67)
- (131) 은장아기 : 은(銀) + 장(粧) + 아기 : 은그릇에 가루를 타서 먹여 키운 아기 (193)
- (132) 늦장아기 : 늦(籛) + 장(粉) + 아기 : 늦그릇에 가루를 타서 먹여 키운 아기 (193)
- (133) 검은장아기 : 검은(黑) + 장(粧) + 아기 : 검은 색의 나무 그릇에 가루를 타서 먹여 키운 아기 (193)
 검은밭갈새 : 검은 소 (수소) 밧(밭) + 갈(다) + 새(소) (147:94)
- (134) 흐를날 : 하루 : 흐를 + 날 (194)
- (135) 노님놀이 : 노님 + 놀이 (194:40)
 놀음놀게 : 놀음놀이하게 (507:24)
- (136) 선그릇 : 선(線) + 그릇(금) (195:52)
- (137) 그릇질 : 금이 난 길, 하복부의 배꼽에서 여자의 성기를 향해 그어진 금 (162:385)
- (138) 청주냉이 : 청지네 : 청(靑) + 주네 + 영이 (195:76)
 청지냉이, 흑지냉이 (223:254)
- (139) 남돌철귀 : 나무로 만든 돌절구 (144:44)
- (140) 남박새기 : 남 + 박새기 : 나무 바가지 (193:33)
- (141) 남돔배 : 나무 도마 (590:38)
- (142) 남도리 : 드달팡, 디달팡, : 변소 판자로 돌을 걸쳐 만듦 (94:91)
- (143) 남선돌굽 : 남(木)선(斷)돌(石)굽(말부분) : 나무를 잘라 남은 돌 아래 (49:265)
- (144) 남선돌 : 나무를 베어버린 그루터기가 얽힌 돌무더기 (483:182)
- (145) 정깃간 : 정지(부엌) + ㅅ + 간(間)(197:117) 정깃구석, 정깃방석
- (146) 조왕간 : 부엌, 조왕 + 간 (216:146)
- (147) 정깃무뚱 : 부엌문앞 (233:427)
- (148) 질칸아이 : 길을 지나가는 여자 아이 (진이67)
- (149) 놀이내낭 : 계속 내내 (진이63)
- (150) 심근돌 : 심어 있는 돌 : 박힌 돌, 땅에 파서 심어 놓은 돌 (197:112)
- (151) 코를 메자 : 코메다 : 산에서 큰 나무를 베어 소를 끌어 올 때 나무의 한 끝에 구멍을 뚫고 밧줄을 꿰어 묶어 끌어오도록 만들다 (464:109)
- (152) 몰팡돌 : 몰(馬) + 팡(넓적한 돌) + 돌 (60:404)
- (153) 몰팡돌 : 물을 채운 허벅을 내려 놓도록 만든 길고 넓적한 돌 (197:113)
- (154) 금덩이, 은덩이 : 금덩이, 은덩이 (201:208)
- (155) 봄병애기 : 봄병아리 (460:20)

- (156) 속하니중 : 심부름하는 중 (107:26)
속하니 (147:103)
- (157) 당하니 : 당에 전속된 소미(당소미) (685:71)
- (158) 꿩동배 : 쇠도마 (590:39)
- (159) 뒷할마님 : 집 뒤에 모시는 신 (70:520)
- (160) 국내 : 국냄새, 팔내 : 개펄냄새, 풀내 : 糊臭, 칼내 : 간장에서 나는 냄새
(154:214)(151:215)(152:216)
풀내 : 풀(草)냄새 (155:232), 흑내 : 흙냄새 (54:317), 네감내 : 연기 냄새 (54:318)
그끄렁내, 극궁내, 그실먹내 : 그으름 냄새 (54:319)(685:81)(740:80)
손내 : 손냄새 (665:617), 췌내 : 쇠냄새 (665:618), 노랑내 : 노린내 (667:662)
콧내 : 쇠고기의 기름내 (667:662), 동경내 : 짐승의 따위의 불알을 끊어낸 냄새
(590:49), 몬짓내 : 먼지 냄새 (740:79), 놀랑놀핏내 : 비린내, 날핏내 (54:320)
- (161) 칼싼다리 : 칼날이 위로 향해 세워진 다리로 신방이 신칼로 점을 칠 때 신칼이 위
를 향하여 서면 이를 칼싼다리라 함 (158:310)
- (162) 새나웁네다 : 살아나게 합니다 (210:34)
새나줍서 : 살려내어 주십시오 (211:44)
새나우며 : 살아나게 하며 (312:709)
새낭갑서 : 살려 내어 가십시오 (211:47)
- (163) 갈림시견 : 갈림 + 시기(다) + 언 : 분가시켜서 (225:284)
- (164) 풀직거리 : 쾌차차림의 심방이 곳을 할 때 왼쪽 팔에 묶어 매는 피륙 (312:716)
- (165) 대추남이꼬까마귀저울 : 대추나무 저울 (318:50)
- (166) 귀졸음 : 앉아서 즐기 (324:154)
- (167) 벨진밭 : 별이 떨어진 밭, 매우 넓은 밭 (345:562)
벨진+ 밭(명사)
- (168) 물굴매 : 물그림자 (341:488)
- (169) 돌아들어 : 달려 들어서 (684:58)
- (170) 양기조침 : 까마귀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 (273:129)
- (171) 흥마음흥걸레 : 말방울 (122:270)
- (172) 즈긋 : 줄(걸) + 긋(가) (320:81)
- (173) 굼벵이 소꿍개 : 굼벵이 소꿍다 : 굼벵이가 작물의 뿌리를 잘라먹다 (364:923)
- (174) 절고갯질 : 물결이 등성이가 된 부분 (366:14)
절소리 : 물결 소리 (694:224)
- (175) 모로기좁쟁이 : 병어리 점쟁이(382:37)
- (176) 애순다리 : 애닭은 다리 (158:313)

- (177) 애순맛슴 : 애앓은 마음 (158:314)
- (178) 등진 드리 : 배반한 다리, 신칼의 등이 서로 마주 향하면 등진드리라 함 (159:315)
- (179) 옳은 드리 : 옳은 다리 (159:317)
- (180) 늪질 지계 : 남의 액을 얻어 쓰는 것 (84:129)
- (181) 동의와당, 서의와당 : 동, 서 + 의 + 와당(바다) (35:33)(35:36)
바당물 (527:40)
- (182) 성주 무어 : 집을 지어 (45:202)
- (183) 느다(右), 웨우(左) :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느다 식번 웨우 식번 (153:199)
웨우느다 : 좌우로 (113:123)
- (184) 은찢 : 은걸 : 매우 부드러운 손길 (121:258)
- (185) 즈작벳 : 몹시 뜨거운 햇볕 (332:317)
- (186) 진돌음 : 진(長) + 돌음(走)
같은 밧디 진돌음 : 매우 급한 일 (85:134)
돌음돌게 : 달음하계 (507:23)
- (187) 목을 들러 : 울어 (34:16)
목들르고 (124:302) : 새벽을 알리고
- (188) 이녁 : 자기
이녁 말은 일 (164:414)
- (189) 지냥으로 : 자기대로 (690:147)
- (190) 불치 : 재
손바닥으로 불치를 (164:416)
- (191) 개조롬 : 개의 꿩무니 (343:531)
- (192) 본메본짱 : 증거가 될 사물 (38:111)
본메본짱 주고 갑서 (38:112), 본메본짱 내여 노라 (161:360)
본메나 주웁데가 (38)
본짱 : 저승 본짱을 주는 계 (243:603)
본메훑던 : 증거를 두웁던 (510:27)
- (193) 꼭씨 : 꼭 + 씨 : 박씨 (38:113)
- (194) 예숙제끼다 : 수수께끼하다.
예숙이나 제껴근 : 수수께끼나 해서 (40:137)
- (195) 메가 줄라지고 : 메즈르다 : 흠이 비옥하지 못하다
↔ 메가 질어집네다 (41:143)
- (196) 상마을 : 저승에서 가장 좋은 곳 (449:53)

- (197) 이새끼 : 어머니와 아들 (654)
- (198) 암창개 : 신부가 자원해서 가는 혼인 (57:362)
- (199) 번구름 : 뭉게구름 (60:401)
- (200) 은ㄴ새 : 은가위 (277:173)
- (201) 청ㄴ새 : (308)
- (202) 구덕 일코 거 일호게 :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게 된다 (110:81)
- (203) 존소낭밭 : 자잘한 소나무밭 존(紉) + 소낭(松) + 밭(밭) (94:76)
- (204) 너븐드르 : 넓은 들 : 너븐 + 드르 (528:9)
- (205) 굴왓드르 : 구렁진 밭 (616:177)
- (206) ㄴ는대왓 : 紉竹田 ㄴ는 + 대왓 (668:667)
- (207) 나갓법 : 시루떡을 대접하는 법 (287:318)
- (208) 난여 : 바닷물 위에 나타난 여 (94:78)
- (209) 든여 : 바닷물 속에 숨은 여 (94:79)
- (210) 숨은여 : 조수간만에 나타났다 잠겼다 하는 여 (94:80)
- (211) 정살여 : 다리처럼 건너갈 수 있게 된 여 (483:184)
- (212) 결랫배 : 아기 업는 멜빵 (89:20)
- (213) 갓친 : 갓끈 (92:53)
- (214) 신뿔리 : 신뿔리 (심방의 근원) (63:438)
- (215) 꽃뿔리 : 꽃의 근원, 환생 멸망의 주력을 가진 꽃 (63:440)
- (216) 알림네 : 얼굴 알림으로 주는 예물 (70:504)
- (217) 신알림네 : 신이 되어 왔음을 알리는 증물 (70:504)
- (218) 방부짚네 : 저승에서 왔음을 알리는 방을 붙여준 예물 (70:506)
- (219) 천스망 만스망 : 많은 행운 (72:531)
- (220) 앞발루와 : 바르게 인도하여 (472:96)
- (221) 호름춤치 : 종이 재미를 얻으러 다닐 때 쌀 넣어 다니는 주머니 (353:713)
- (222) 짹짹 : 찌푸라기 (359:818)
- (223) 실겹 : 실오라기 (360:846)
- (224) 돌총겹 : 말총(馬尾)의 날개 (347:600)
- (225) 팽즈낭 : 팽나무 (124:301), 팽제낭 (144:38)
- (226) 상동낭 : 상동나무 (125:320)
- (227) 백벼름을 : 바람벼리라 하지 않고 벉벼름이라 함 (216:129)
- (228) 조추믈 : 상마루 (216:143)
- 물믈 : 수평선 (423)
- (229) 배코 : 밧줄의 한 고

- 흔 배코만 누겨줍서 (217:153)
- (230) 질에염 : 길가 (255:794)
 예염내여 : 가족과 살 사이에 틈을 내어 (332:326)
- (231) 질토래비 : 길을 보수하는 사람 (254:778)
- (232) 들굽냥 : 느티나무 (117:180)
- (233) 멧개냥 : 청미래덩굴 (82:74)
 멧개냥 코지 보수완 : 청미래 나무 꼬챙이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344:50)
 멧개냥자왈불 : 청미래덩굴불 (593:83)
 멧개냥자왈 : 청미래덩굴 (332:322)
- (234) 가시자왈 : 가시덤불 (722:343)
- (235) 텃병에 : 잔디 덩이 (74:379)
- (236) 낭궐 : 나무의 날개 (740:92)
- (237) 대축나무 : 수수깡 (197:101)
- (238) 폭냥 : 팽나무 (597:132)
- (239) 머구냥 : 머귀나무 (265:976)
- (240) 낭굽 : 나무의 밑동 (754:87)
- (241) 꼭궐 : 칩덩굴 (685:88)
- (242) 밧궐헛젠 : 갈대꽃이 피기 전 그 꽃을 싸고 있는 줄기의 맨 윗부분을 뽑아 말려 두
 드리고 새끼를 꼬아서 신날 등에 씌. 이 줄기 뽑는 것을 '밧궐헛다'고 한다 (685:89)
- (243) 족냥막댕이 : 때죽나무 막대기 (222:240)
- (244) 디딜궐 : 변을 볼 때 디디고 앉게 걸쳐 놓은 넓고 얇은 돌 (412:290)
- (245) 비즈냥 : 비자나무 (643:245)
- (246) 낭가쟁이 : 나뭇가지 (342)
- (247) 왕대크르 : 왕대그루 (305:579)
- (248) 삭달냥 : 삭정어 (330:277)
- (249) 푸십새 : 초목류 (223:255)
- (250) 푸나미장시 : 푸나무 장수 (462:64)
- (251) 눈부약 한탈냥 : 풍설에 얽힌 산딸기나무 (212:62)
- (252) 희어나고 희어들고 : 헤어나고 헤어들고 (681:5)
 비름산도 희어웁서 : 風山도 (헤치고) 오십시오 (449:56)
- (253) 허우뜰어 : 헤쳐뜰어 (254:77)
- (254) 콩궐 : 콩구슬 (123:292)
- (255) 어욱궐기 : 억새포기 (124:296)
- (256) 숨은 모살 : 바닷물이 썰어서 물결 자국이 남은 모래밭 (118:199)

- (257) 모인구둑 : 물기 없는 먼지 (118:205)
- (258) 코각시 : 코끝이 벌겋게 부어오르는 병 (189:71)
- (259) 종하님 : 노비 (126:328)
- (260) 홍얼레기 : 홍빛 (125:321)
- (261) 명석걸이 : 사람을 명석 속에 넣어 말아 거꾸로 세워 고통 주는 형벌 (232:413)
- (262) 생깃밧 : 마루방과 큰방 사이의 기둥(생깃지둥)의 밑부분 (236:483)
 생깃지둥 : 마루방과 큰 방과 고방 사이의 기둥 (464:99)
- (263) 나까시리 : 시루떡 (287:318)

3. 부사 어휘 목록

- (1) 종곰종곰 : 뒤따라 가는 모양 (144:42)
- (2) 새곰새곰 : 신맛 (154:218), 새급새급 (진초55)
- (3) 돌곰돌곰 : 단맛 (154:220)
- (4) 가옥가옥 : 까마귀 우는 소리 (144), 가옹각각가옹각 (진문119), 까옥까옥 (진이74)
- (5) 소곡소곡 : 허리를 소곳이 연해 굽히는 모양 (147:96)(155:243)
- (6) 자작자작 : 허리를 뒤로 꺾히고 걸어가는 모양 (156:271), 잣딱잣딱 (진초41)
- (7) 섯득섯득 : 싸늘한 물체가 가끔 스칠 때의 감각 (160:343)
- (8) 섯딱허연게 : 섯득 (384:74)
- (9) 오골오골 : 쌀알이 모여 있는 모양 (162)
- (10) 촉신촉신 : 비가 촉촉하게 오는 모양 (194:41)
- (11) 둘각둘각 : 그릇소리 (202)
- (12) 허울허울 : 가볍게 걸어 가는 모양 (249:718), 가볍게 부채로 부치는 모양 (709)
- (13) 와랑치랑 : 말방울 울리는 소리 (122:269)
 와라치라 : 고관이 행차할 때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
 풍경들고 와라치라 잘 살아간다 (201:210)
 왈랑달랑 : 굿하는 소리 (진초51)
- (14) 곱이첩첩 : 겹겹이 (45:197)(100:53)
- (15) 흥당망당 : 물에 오래 담겨 있는 모양 (477:53)
- (16) 푼릿푼릿 : 새싹의 색깔 : 죽은 사람이 생기가 돌아 오는 모양 (46:210)
 미역의 색깔 (진초55)
- (17) 엄방덤방 : 무를 굵직하게 썬 모양
 엄방덤방 무수채 (81:43)
- (18) 비비둥둥 : 피리, 북 등이 울리는 소리 (34:31)(167:506)

- (19) 지리넘넘 : 그릇이 첩첩 넘치는 모양
지리넘넘 비와 (82:70)
- (20) 오송송 : 기름을 그릇에서 졸이는 모양 (319:68)
오송오송 : 소량의 액체가 찾아드는 모양 (234:456)
- (21) 시원석석 : 매우 시원한 맛 (503:14)
- (22) 울릉출렁 : 술을 뜰 때 술이 내려가는 소리 (485:219)
- (23) 문들문들 : 매근매근 (485:220)
- (24) 츠침츠침 : 차츰차츰 (851:2)
- (25) 차근차근 : 차근차근 (461:44), 즈근즈근 (진문134)
- (26) 오망오망 : 아이들 따위가 여럿이 있는 모양 (450:158)
오망삭삭 : 작은 아이들 따위가 여럿이 영글어진 모양 (455:136)
- (27) 울짱울뽕 : 악기 소리를 말함 (460:29)
울뽕울짱 (89:24)
- (28) 왕강싱강 : 풍경 울리는 소리 (549:43)
- (29) 드리칭칭내칭칭 : 계속 악기를 울리는 소리 (554:101)
드리쿵쿵내쿵쿵 : 개가 짖는 소리 (147)
쿵쿵 : 개짖는 소리 (진초46)
- (30) 내려옴내려옴 : 내려오고 내려오고 (612:100)
- (31) 움옴 : 오고오고 (611:92)
싸옴싸옴 : 계속 싸우는 모양 (346:582)
- (32) 어식비식 : 음흉하게 이리저리 숨어 다니는 모양 (519:57)
- (33) 도리도리 : 차례로 바르게 놓는 모양 (131:410)
- (34) 오조조조 : 참새들의 울음소리 (161:337)
- (35) 소랑소랑 : 여럿이 나란히 앉거나 누운 모양 (157:282)
스랑스랑 : 잔잔한 바다의 잔물결 소리 (694:225)
- (36) 펜직펜직 : 바닥이 보일 듯 말 듯이 물이 권 모양 (697:255)
- (37) 어렁떠렁 : 마소모는 소리
어렁떠렁 넘어간다 (158:309)
어러렁떠러렁 (330:284)
- (38) 툃툃 : 문을 단단히 잠근 모양 (145:52)
- (39) 우뭉주뭉 : 크고 작은 새 순들이 날리 섞이어 난 모양 (134:477)
- (40) 으르르으르릉 : 잠잘 때 코고는 소리 (135)
- (41) 울짱실짱 : 울줄실줄 (100:67), 피륙의 울과 실의 상태 (308:646)
- (42) 무드득 : 눈길 밟는 소리 (122:264)

- (43) 느찰 : 미끄러운 모양 (118:15)
 나찰 : 느찰의 모음 교체로 인한 말 (118:16)
- (44) 우막우막 : 음식을 자꾸 많이 넣으며 맛있게 먹는 모양 (199:151)
- (45) 무룩무룩 : 그릇에 넘을 만큼 양이 많은 모양, 숟가락으로 가득 떠 먹는 모양 (200:172)
- (46) 누릿누릿 : 누르스름한 모양 (201:195)
- (47) 물락물락 : 매우 물씬물씬한 모양 (201:199)
- (48) 팔롱 : 눈을 생기차게 뜬 모양 (203:249)
- (49) 울리둥둥 : 활을 쏘는 소리 (752:62)
- (50) 반들반들 : 햇빛이 달빛에 반짝이는 모습 (694:226)
- (51) 숨숨 : 별이 떠 있는 모양 (694), 송송 (706:84)
- (52) 바롱바롱 : 담구멍이 뚫인 모양 (707)
- (53) 편편 : 불리도 대답이 없는 모양 (716:225)
- (54) 바삭 : 마른 잎이 내는 소리 (119:214)
- (55) 하웃 : 몹시 목이 말라 먹고 싶어 하는 모양 (119:218)
 하웃져 : 허위적거리 (308:639)
- (56) 어주리비주릿질 : 요철이 매우 심한 길 (185:7)
 어주리비주리 (212:61)
- (57) 와글와글 : 술이 피어 오르는 모양, 소리 (186:31)
- (58) 소로록 : 소량의 액체나 작은 물건 따위가 좁은 구멍으로 흘러 내리는 모양이나 소리 (234:458)
 소록기 : 작고 동그란 물체가 좁은 구멍으로 미끄러지는 모양이나 소리 (237:510)
 도록기 (709:109), 스크렛기 (진문142)
- (59) 오뚝뚝 : 가는 나뭇가지를 꺾는 소리 (236:481)
- (60) 즈지반반 : 고요한 때 들리는 닭 우는 소리 (227:313)
- (61) 소닥소닥 :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양 (216:148)
- (62) 어뜩어뜩 : 검은 그림자 따위가 잠깐씩 어른거리는 모양 (352:689)
- (63) ㄱ웃ㄱ웃 : 목이 몹시 마른 모양 (339:455)
- (64) 조단조단 : 자상하게 또박또박 (217:155)
- (65) 발강발강 : 고구마 따위의 물건을 씻는 소리, 모양 (274:137))
- (66) 왓방참방 : 물을 때렸을 때 철버덕거리는 소리 (326:208)
- (67) 메쪽메쪽 : 물체가 조금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모양 (327:220)
- (68) 궁기궁기 : 구멍마다 (720:310)
- (69) 어속비속 : 경사지게 (720:330)

- (70) 붓붓 : 물기 없는 모양 (719:287)
- (71) 코송코송 : 냄새가 구수함의 표현 (720:305)
- (72) 왁왁 : 사방이 어두운 모양 (310:下:7줄)
- (73) 어얄어얄 : 금이 번듯번듯 나게 벌어진 모양 (838:74)
- (74) 아리롱 다리롱 : 뱀의 빛깔 (422:55)(425:117)
- (75) 엉기덩기 : 키가 큰 것이 여러 개 울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양 (532:69)
- (76) 동글동글 : 둥근 것의 상태 (진체263)
- (77) 숙숙 : 앉아서 머리를 그덕끄덕하게 조는 모양 (399:34)
- (78) 자락 : 힘차게 떠밀거나 때리는 모양 (403:114)
- (79) 팽팽 : 도는 모양 (405:19)
- (80) 구억구억 : 구석구석 (441:15) 구억 (436:23)
- (81) 방울방울 : 열매가 달린 모양 (154)
- (82) 호웅지웅 : '호웅지웅'은 신랑신부행차 때 하인들이 호오웅하고 내는 소리로 '호웅지웅하니'는 '혼인하니'의 뜻이다 (738:46)
- (83) 슬그랑 : 빼만 고스란히 남아 있는 모양 (269:37)
슬그랑이 (진문134), 실그락 (진이99), 슬그랭이 (진이101)
- (84) 뇌울뇌울 : 토해질 것같이 속이 좋지 않은 모양 (381:33)
- (85) 느귀나귀 : 피륙의 양쪽 끝이 일정치 못한 모양 (308:648)
- (86) 곰상 : 구멍이 솟솟이 보일락말락하다 (121:261)
- (87) 오솔오솔 : 고기를 야금야금 조금씩 떼어서 구워 먹는 모양 (진문132)
- (88) 허우덩쌩, 허우덩쌩 : 매우 기뻐서 입을 크게 벌려 웃는 모양 (166:471)
- (89) 줍지롱이 : 자잘하게 (82:76)
- (90) 흘그산이 : 흘깃하게 (155:250)
- (91) 당돌막이 : 짤막하게 (40:139)
- (92) 기리에기 : 길쭉하게
기리에기 혼 백년 장수장명 히여줍서 (83:105)
- (93) 습습이 : 겉으로 못보도록 속으로 (248:690)
- (94) 와들랑이 : 벌떡 일어나는 모양 (232:408)
- (95) 오돌랑이 : 누웠다가 매우 가볍게 일어 나는 모양 (718:278)
- (96) 힐꾸름이 : 힐끔이 (384:93)
- (97) 헤뜰랙기 : 사지를 펴고 납작하게 자빠진 모양 (347:656)
- (98) 탕글랑이 : 탕강 (270:68)
- (99) 우두켁이 : 우두커니 (270:59), 으도록이 : 동그마니 앉아 있는 모습 (진문131)
- (100) 베롱이 : 불빛이 희미한 모양 (329:256)

- (101) 문뜰랙이 : 옷을 모두 벗은 모양, 둥그스름하고 매끈한 모양 (324:157)
문뜰랙기 (340:474) 문지래기 : 매끄럽게 (진초43)
- (102) 흘래기 : 느슨하게 (진초56)
- (103) 으지짓기 : 바싹 조여 매는 모습 (진초56)
- (104) 옥긱 : 우뚝 일어서는 모양 (진할115)
- (105) 오송송이 : 많은 별이 빛나는 모양 (109:71)
- (106) 꾀꾀드리 : 깊이깊이 생각하는 모양 (555:124), 꾀꾀드리 : 꾀꾀이 (243:605)
- (107) 뷔스스기 : 머리털 따위의 연한 물건이 타 없어지는 모양 (236:491)
- (108) 좃좃이 : 자세히 (384:82)
- (109) 다르르기 : 둥글고 작은 물건이 굴러 떨어지는 모양이나 소리 (402:80)
주루룩기 (진할155), 좌르르 (진초39)
- (110) 와드득기 : 주리 틀 때 나는 뻐 소리 (진이74)
- (111) 와시시 : 여럿이 나오는 모양 또는 소리 (682:24)
- (112) 막디막디 : 마디마디 (311:下)
- (113) 능활낭활 : 걸음걸이 모습 (298:下)
- (114) 주악주악 : 흥칫 놀래는 모습 (진할170)
주악 (진초55)
- (115) 흐락화락 : 신나는 모습 (진문116)
- (116) 줄락줄락 : 켜 걸음으로 가는 모습 (진문116)
- (117) 으상으상 : 별 생각없이 걷는 모습 (진문116)
- (118) 구작구작 : 열심히 걸어가는 모습 (진이95)
- (119) 과랑과랑 : 햇별이 내리쬐는 모습 (진문117)
- (120) 지식지식 : 꾸벅꾸벅 조는 모습 (진문117)
- (121) 느룻느룻 : 기운이 빠져 나가는 모습 (진문117)
- (122) 빙씩 : 빙긱이 웃는 모양 (진할154)
- (123) 흥글흥글 : 흔들리는 모습, 혼드는 모습 (진문126), 흥글흥글 : 흔들흔들 (진초39)
- (124) 북작북작 : 칼 가는 소리 (진문131)
- (125) 스리슬슬 : 눈물 흘리는 모습 (진문141)
- (126) 수근닥수근닥 : 속삭이는 모습 (진문129)
- (127) 슬락 : 살짝 (진문130)
- (128) 오그력페악 : 오그렸다 폈다 반복하는 모습 (진문130)
- (129) 꺾딱꺾딱 : 부채로 부치는 모습 (진칠177), 꺾딱꺾딱 (진초42)
- (130) 부석느작 : 몸이 몹시 부서지한 모습 (진칠191)
- (131) 오동동동 : 방아 찧는 소리 (진칠196)

- (132) 지락지락 : 열매가 많이 달려 있는 모습 (진초45)
- (133) 오독오독 : 모여 서 있는 모습 (진초47)
- (134) 가릿가릿 : 청각의 색깔 (진초55)
- (135) 고불고불 : 조그만 물건을 주워 담는 모습 (진초39)
- (136) 활짝 : 급히 행동을 취하는 모습 (진초39)
- (137) 싱강 :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진초39)
- (138) 호호 : 한숨 소리 (진초51)
- (139) 줍막 : 깜짝 놀라는 모습 (진초39)
- (140) 회양씩씩 : 하얗게, 깨끗하게 (진초54)
- (141) 속숨 : 편편 : 반응이 없는 상태 (진이95)
- (142) 브드득 : 콩 볶는 소리 (진이90)
- (143) 아망지망 : 정신이 혼미한 모습 (진이83)
- (144) 얼랑얼랑 : 불이 달아 올라 쇠붙이가 붉은 모양 (672:721)
- (145) 공글공글 : 물 위를 작고 동그란 것이 떠가는 모습 (진철191)

4. 관용 표현 어휘 목록

- (1) 굴리 나고 시찌나다 : 눈밖에 나다
 굴리나고 시찌나 : 눈밖에 나고 거슬리어 (195:54)
 굴리(가루) 나고 (662:581)
 눈에 사시나 : 눈에 거슬리어 (766:80)
- (2) 왕 구녕 차가다 : 나이가 차 몸이 성숙하여지다 (38:117)
- (3) 예숙제끼근 : 예숙이나 제끼다 : 수수께끼하다 (40:137)
- (4) 메즈르다 : 흙이 비옥하지 못하여 초목의 성장이 나쁘다 (41:143)
- (5) 구덕 일코 거 일흐다 :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다 (110:81)
- (6) 뛰는 재주가 좋댕 허여도 늑는 재주가 싯젠 허여라 : 뛰는 재주가 좋아도 나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 (121:252)
- (7) 연조새 앓다 : 어린 아이가 다리 무릎을 꿇다 굽혔다 한다 (289:342)
- (8) 전승 팔자를 그르쳐사 : 심방이 되다 (174:602)
- (9) 어른덜 논드리로 : 조상들이 시작한 습속을 따라 (531:53)
- (10) 흔 놀기롤 봇티오길 : 살 한 대를 쏘기를 (616:167)
 흔 놀기롤 브투완 (598:147)
- (11) 당을 메어서 : 심방이 당에 전속되어서 무제 집행을 전담하고 당을 지키다 (634:115)
- (12) 팔즈 굿혀시니 : 처녀몸을 더럽혀 길을 막아버렸다 (770:144)
- (13) 가른 밧디 거름이라 : 갈아 놓은 밭을 걷는 걸음이라

까마귀 걷는 모습을 표현한 말 (273:128)

- (14) 가른밭 진돌음 홀일 : 간 밭에 긴 달음질 할 일, 매우 급한 일 (85:134)
- (15) 막음판이 고와시민 현 옷 앞섰이 아무는 법 (82:90)
 마음씨가 고우면 부딪힌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된다
- (16) 으그못도 못한다. : 조금도 열지 못한다 (695:235)
- (17) 늪질 지개 : 남의 액을 얻어 쓰는 것 (84:129)
- (18) 도란앞에 이슬 7뜬 인생 : 매우 덧없는 인생 (46:207)
- (19) 지성이민 감천이고 유전이민 가사컷법이라 :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리는 법이라 (82)
- (20) 대천 간에 질날 운수, 대로 한질 날일 : 급환을 만나 신을 신은 채 마루방을
 뛰어다닌다 (85:132)
- (21) 옛정은 고정으로 : 옛정은 순진하고 변함없다 (243:622)
- (22) 가시낭에 인정 결명 : 가시낭에 인정 결다 : 신에게 재화를 바치다 (338:443)
- (23) 난 디 나민 난 디 행실호라 : 속해 있는 곳의 관습을 따르라 (347:611)
- (24) 부모의 말씀에 눈을 트니 : 부모의 말을 거역하다 (눈비불뚝당 본풀이)
- (25) 몰안장 그릇을 내오리다 : 마소의 일하는 습관을 들이다 (338:437)
- (26) 어림세고 트림 세여 : 우김 세고 토라짐 세여 (616:161)(616:162)
 어심세고, 투심세여 : 우김이 세고, 투기심이 세어 (737:38)
 어기씨고 : 역세고 (765:5)
- (27) 성도 언만 조을선가 : 성종다(마음이 좋다) (90:32)
 성도 언만 가실서냐 : 성가시다 (90:32)
- (28) 코도 아니 타주완 : 코도 아니 타지운다 (337:429)
 코타지다 : 그릇의 뾰죽한 부분이 약간 떨어지다, 일이 실패하다
- (29) 궁안에도 브름이 들었고나 :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쓰는 표현 (진초56)
- (30) 죽음광 삶이 맞사랴 : 삶이 더 중요하다 (294:上)
 죽음광 삶이 맞삼니까 (진이90)
- (31) 우이로 느린 물이 발등에 집니다 : 차례가 있는 법입니다 (142)